



앨런 파커 변호사(왼쪽)가 참석자들에게 낙태법과 미국의 성경적 가치관 회복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준비 중인 관계자들. (왼쪽부터) 김선호 교수, 박제호 박사, 이상명 총장, 켄 안 선교사, 김일권 선교사, 권태산 목사.

## 세상은 급변하는데 기독교는?

###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 포럼 열린다

교계와 과학계가 하나되어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처 방안을 나눈다. 오는 10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LA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제1차 세상을 마주하는 포럼-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가 열린다.

이 행사에는 USC 컴퓨터공학과 김선호 교수, 하버드대학교 IT센터 부소장인 박제호 박사 등 과학자들과 함께 기독교 미디어 및 IT 사업자인 켄 안 선교사(Global Media & IT 대표), 이상명 총장(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이 각각 4차 산업혁명 개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미래 과학 기술 혁명과 사회적 윤리적 이슈, 미래 과학 기술 혁명과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발제한다.

발제 후에는 권태산 목사(울림교회), 송운철 교수(월드미션대학교), 김일권 선교사(OM KAM 대표)가 패널 토의를 벌인다.

지난 9월 1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켄 안 선교사는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미칠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혁명을 예고하며 “기독교계가 이에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명 총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기독교가 너무나 무지하다. 그

동안 신앙과 과학은 갈등을 빚는 것처럼 여겨왔지만 기독교인들도 과학으로 말미암은 사회 변화를 인지하고 대처해야 한다.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기에 기독교와 신학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호 교수도 “대기업 임원에 인공지능이 포함될 것이라 예측도 나오고 있고 이미 사이버 교회도 존재한다. 상냥하고 친절하며 지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이버 목사가 나올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며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무인차가 교통사고 상황을 감지할 시 가장 우선 순위를 보행자 안전에 둘 것인지, 운전자 안전에 둘 것인지 문제만 해도 윤리적 가치를 필요로 한다”며 기독교의 관심을 요청했다.

김일권 선교사는 “성도들의 삶을 급변시킬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과학자와 신학자가 모여서 논의하는 장”이라 이번 행사를 소개했다. 이 행사는 한인 과학자들로 구성된 한국과학기술협의회가 준비하고 있다. 남가주 지역의 목회자 및 선교사 110명 선착순으로 참석이 가능하며 점심 식사가 제공된다. 참석 비용은 없지만 참석을 예약해야 한다. 문의) 714-823-3669

## 회개와 말씀 회복, 신앙 전수 필요해

### 종교개혁 기념 준비위 “성경적 가치관 회복 세미나” 개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대표회장 한기홍 목사)가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성경적 가치관 회복 세미나”를 개최했다. 9월 7일 LA 지역, 9월 8일 OC 지역에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앨런 파커 변호사, 주해홍 목사, 정한나 사모가 각각 “왜! 낙태법은 폐지되어야 하는가?”, “우리 교회부터 성경 속으로”,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으라”란 제목으로 강의를 전했다.

LA 지역에서는 한인타운 내 한 호텔의 컨퍼런스룸을 빌려 세미나가 진행되었는데 150여 좌석이 가득찰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낙태법 폐지를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는 앨런 파커 변호사(세인트메리대학 법과교수, 정의의 재단 설립자 및 대표)는 그가 이끌고 있는 단체인 모럴 아웃크라이(The Moral Outcry)가 진행 중인 서명 운동을 소개하고 한인 사회의 동참을 호소했다.

그는 “낙태가 여성에게 미치는 중대한 해악에 대해 확인했으며 낙태자들의 후회가 담긴 간증을 사례로

수집하고 있다”고 말한 후 “자신이 원하지 않을 경우 아기 출산 후 아기를 병원에 두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존재한다. 따라서 아기를 키우기 싫거나 부담된다고 낙태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그가 말한 법은 세이프 헤이븐(Safe Haven) 법이다. 일명 아기 모세 법(Baby Moses laws)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병원에서 아기 출산 후 양육을 거부하면 ‘묻지도 않고 비용도 없이’ 아기를 병원에서 임의로 맡아 준다. 이 아기는 나중에 입양된다.

파커 변호사는 “전국적 거대한 회개 없이 미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을 미워하시는데 낙태야말로 아기들의 생명을 빼앗는 죄”라고 말했다.

그는 “낙태는 연방대법원을 통해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을 통해 뒤집어줘야 한다”면서 “한인들도 연방대법원으로 보내는 청원에서 서명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한편, 이 강의 후에는 주해홍 목사(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대표)가 성경 읽기에 관해서 강의를 전했다. 그는 올바른 성경 읽기의 중요성과 그 방법을 소개했으며 종교개혁을 맞이해 모든 교회에 성경 읽기 운동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강의는 정한나 사모(꿈방 대표, 남가주광업교회)가 전했다. 그는 여섯 자녀를 키운 이야기를 소개하며 “나보다 더 예수를 잘 믿는 자녀로 키워내는 것이 소원이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키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공부하고 유대인 랍비들에게 묻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경건한 자손은 경건한 부모에게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부모를 볼 수 있는 가정, 가정예배를 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가정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 단체는 오는 10월 29일 오후 5시 은혜한인교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대회 및 다민족연합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310-995-3936

“예수영광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ASE CERTIFIED LA Auto Tech**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전기계통  
 ■ Tune-Ups ■ 10K Service  
 ■ Computer Diagnostic ■ A/C Service  
 \*월~금 : 8AM~6PM, 토 8AM~4PM \*320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323)735-3180**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기/독/일/보 이사장 취임식  
**초대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이란 모토로 2004년에 창간한 미주기독일보가 제2대 이사장 취임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부디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임이사장: 임덕순 장로  
 ■ 일시 : 2017년 9월 24일(주일) 오후 4:30  
 ■ 장소 : 감사한인교회(김영길 목사)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 문의 : (213)739-0403

<b>초/청/인</b>	기독일보 이인규 사장	편집고문 박희민 목사, 고승희 목사, 민중기 목사, 박기호 목사, 정우성 목사	오백익 목사 (제1대 이사장), 이호우 목사 (O.C교회협의회 회장), 김영구 목사 (남가주목사협의회 회장)
--------------	-------------	---	--

# 남가주목사회 임시총회 열고 정관개정 회장단 발전기금 폐지 등 골자

제50대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김영구 목사)가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단 발전기금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목사회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오직예수선교교회(샘 신 목사)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과반수 찬성으로 정관 제3장 8조 1-3항의 회장 출마 시 발전기금 5,000달러 및 수석부회장의 발전기금 3,000달러와 부회장의 발전기금 500달러 항목을 폐지시켰다.

김영구 회장은 “현 회칙에 따라 부회장 3년과 수석부회장을 거치며 1만 달러가 넘는 돈을 내면서 회장으로 봉사할 사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정관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회장은 “어느 단체도 공탁금 제도가 있다. 이는 그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다. 기독교 단체는 어느 개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한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



임시총회에서 김영구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어야 한다. 목사회가 먼저 본이 되겠다”고 말했다.

목사회는 회장단 후보의 난립 문제는 3장 10조 임원의 선거 3항을 기존의 ‘서류제출 시 30인 이상의 회원 추천’ 조항에 ‘연방정부의 비영리 단체 등록 교회 증명서’를 첨가하고, ‘30인 이상의 현역 담임 목회자의 추천’으로 회장 출마자의 검증을 강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 제6장 ‘이사회’에서 1항 ‘이사장 1인’을 “이사장은 1인으로 구성

하며,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발전기금 5,000달러를 기탁한다”와 2항 ‘부이사장 3인’을 “부이사장은 3인으로 구성하며 발전기금 2,000달러를 기탁한다”로 개정해 이사진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드러진 예배에서는 샘 신 수석부회장의 인도로 데이빗 이 목사의 기도 후에 송택규 목사(크리스천영성 대표)가 ‘기독교의 덕목(마 23:23)’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고 김재중 목사가 축도했다.



(왼쪽부터) 남가주장로협의 김영균 부회장, 하기언 중경회장, 한철수 회장, 김용식 수석부회장, 김광배 회계. © 남가주장로협 제공

## 남가주장로협 사랑의 찬양제 개최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회장 한철수 장로)가 오는 9월 24일 오후 5시 30분 인랜드교회(박신철 목사,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에서 제11회 사랑의 찬양제를 개최한다.

이 찬양제로 모금된 기금은 탈북민과 불우이웃, 선교지를 돕는 데에 사용된다. 이번 음악회에는 남가주장로성가단, 목사장로부부합창단, 미주여성코랄, 오렌지미션남성중창단, 이화여대동문합창단 등이 뜻

을 함께 한다. 또한 나성성결교회, 인랜드교회, 총현선교교회의 성가대도 참여한다.

한철수 회장은 “이번 사랑의 찬양제를 통해서 기독교계가 불우이웃 돕기에 최선을 다하는 귀감을 보이고 특히 평신도인 장로들이 앞장서 교계의 이미지 쇄신과 발전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949-228-6042

## 살롬장애인선교회 휴스턴 장애인 도와

살롬장애인선교회가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로 재난을 당한 텍사스 휴스턴의 장애인들을 위해 휠체어 200대를 포함해 약 800명을 도울 수 있는 의료보조기구를 긴급 지원했다. 이 기구들은 지난 12일 캘리포니아 리알토를 출발해 14일이면 휴스턴에 도착할 예정이다.

살롬장애인선교회는 지난 18년간 매년 두차례씩 빈곤국가의 불우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사업을 해 현재까지 5만

5천명 이상을 도왔지만 미국 주류 사회의 장애인을 돕는 것은 처음이다. 대표 박모세 목사는 “한인사회는 이민 115년 역사를 지나오는 동안 미국 내에서 소수로서 주로 도움을 받는 수혜자였다. 그러나 이제 한인사회는 더 이상 도움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도리어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의 위상처럼 주류사회와 타 커뮤니티를 품고 섬길 수 있는 수혜자로서 건강한 미국을 세우는 일에 기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OC교협이 월례기도회를 미주복음방송 사옥에서 개최했다.

# OC교협 정기 월례기도회 개최해 미주복음방송에 헌금 전달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이호우 목사)가 13일 애너하임에 위치한 미주복음방송(대표 이영선 목사) 채플룸에서 월례기도회를 가졌다.

이호우 회장은 “미주복음방송이 OC 지역으로 이전하고 OC교협과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한다”며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와 복음 전파에 OC 지역 교회들이 적극 기도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영선 목사는 “미주복음방송의 주인은 남가주 지역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라며 “특별히 미주복음방송이 어려운 순간에 OC교협이 울타리가 되어줘서 감사하다. 지난 26년

을 달려온 것처럼 앞으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월례회는 이태종 목사의 인도로 박용일 목사가 대표기도, 아리랑합창단이 특송한 후, 이필성 목사(랭케스터한인침례교회)가 롬 4:16-24을 본문으로 ‘알고도 신앙’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죽은 자와 방황한 모든 상황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권면했다.

예배는 주일엽 교수의 바이올린 연주 찬양 후에 박승도 목사의 광고, 정영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예배 후에 신현철 목사(OC교협 부회장) 사회로 이영선 목사가 환영사와 방송 사역을 소개한 후 이호우 회장이 이영선 목사에게 감사패와 헌금을 전달했다. 이어 세리토스 ABC교육구 유수연 교육위원의 축사, 자마 대표 강순영 목사의 축사, 평창동계올림픽미주동포후원회 공동회장 임덕순 장로의 축사,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김영구 목사의 축사 후에 이호우 회장이 미주복음방송 이사장 한기홍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미주복음방송은 10월 6일을 공개헌금의 날로 정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공개헌금을 진행할 예정이다.



북미한인루터교 총회가 발표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로고

## 북미한인루터교 종교개혁 로고 발표

미주리 시노드 루터교회 소속 북미한인루터교 총회(총회장 흥영한 목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기념 로고를 발표했다.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정기  
총회

# 제12차 정기총회 공고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목회 현장에서 수고 하시는 모든 목회자 여러분의 사역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과 같이 제12차 교단 총회 소집을 공고하오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7년 9월 19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세상을 향한 비전 교회(담임 김경희 목사)  
3130 Wilshire Blvd. #403., Los Angeles CA 90010
- **TEL** : (213)507-8323 교회

**트리니티연국제합장로회**  
TRINITY INTERNATIONAL UNITED PRESBYTERIAN OF GRNERAL ASSEMBLY

- 총회장 정영수 목사 T:(714)578-5791
- 서기 김성신 목사 T:(714)323-4203

- 본교단 직영신학교
- 트리니티국제연합장로회 신학대학 및 대학원 T:(714)767-1806



기윤실의 건강 교회 교실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 교회 갈등, 분쟁 되기 전에 대면해야

## 기윤실 주최 '제1회 건강 교회 교실'

LA기독교윤리실천운동(박문규 대표, 이하 기윤실)이 건강한 교회와 가정 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제1회 건강 교회 교실'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윤실 사무국장 조주현 간사는 "다양한 주제로 6번의 세미나를 열었다"면서 "기윤실의 건강한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운동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감사하다"고 전했다.

지난 9일 세미나에서는 안재엽 변호사(Compassion Law Group)가 '교회 갈등의 예방과 분쟁해결'이란 제목으로 강의했다.

안 변호사는 "이민교회 안에 갈등이 생길 때 '수용'과 '거부'라 두 가지 형태가 있다"면서 "갈등이 분

쟁으로 커지지 않도록 건설적으로 대면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교회 갈등이 커져 분쟁으로 번지면, 세력화가 되고 외부적인 힘까지 의지하게 된다"면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때 성도들이 인격적인 큰 상처를 받고, 특별히 주요 관계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교회 갈등의 해법으로, 갈등이 일어날 때 방관하지 말고, 교회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그 문제를 놓고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인들은 일제 식민지와 분단을 겪으면서 대인관계에 대한 기술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라며 "타인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는 대화의

기술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이 교회 일의 진행, 결정을 독점하는 것이 교회 갈등의 원인"이라며 "능동적으로 의견을 내고 대화 소통하는 훈련, 상대방의 발언을 끝까지 듣고 발언하기, 결론이 나지 않았으면 차기로 결론을 유보하고 차기에 대화하기 등의 규칙을 정하고 지켜야 한다면 갈등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7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열린 제1회 건강 교회 교실은 설교, 교회정치, 재정, 교회론, 이민교회, 교회갈등, 예방 및 분쟁해결이란 6가지 주제로 매주 토요일 진행됐다.



기독교복음선교연합총회가 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로 이름을 변경했다.

# 복음선교연합총회 및 목사안수식 교단명 변경, 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로

2017년 9월 11일 오후 4시부터 엘리아 김 목사 사회로 1부 개회 예배가 시작됨으로 기독교복음선교연합총회가 시작되었다. 가입총대 81명의 회원 중 51명의 참석으로 총회가 개최되었다.

신임원에는 총회장 주재임 목사(살롬기도원 원장), 부총회장 송인 목사(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 학장), 박정희 목사(뉴저지 새마음 교회), 총무 엘리아 김 목사(나눔과섬김의교회), 서기 장혜숙 목사(엘림장로교회), 부서기 이현옥 목사

(크리스천비전전문사), 회록서기 김진규 목사(코로나 갈보리장로교회), 회록 부서기 안선신 목사(예수사랑교회), 회계 한수지 목사(갈보리채플), 부회계 손사라 목사(나눔과섬김의교회), 감사 민준기 목사(가주장로교회), 윤에스터 목사(얼바인 주님의마음의교회)가 뽑혔다.

이어 남부지역회(회장 고영준 목사) 주관으로 전창식(에반젤리아신학대학원 M.Div.), 김민수(Gordon Conwell 신학대학원 M.Div.) 씨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



평생 선교에 힘쓰던 고인의 모습

# 故 임동선 목사 추모음악회

월드미션대학교가 학교 설립자인故 임동선 목사의 소천 1주기를 추모하며 음악회를 연다.

학교 측은 임 목사에 대해 "평생을 청년의 삶을 산 설립자의 모습을 음악을 통해 나누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복음의 동역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음악을 통해 표현하려 한다"고 전했다.

주최측은 임 목사의 삶을 크게 교육, 봉사, 선교, 소망 등 4가지로 조명하며 이 같은 테마 아래 음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음악회에서는 라크마 챔버 오케스트라와 챔버 콰이어가 월드미션대학교 윤임산 교수의 지휘 아래 모짜르트, 브람스, 멘델스존 등의 곡을 무대에 올리게 되며 소프라노 신선미, 김지현, 김유리, 테너 오위영, 바리톤 장상근 등 LA 지역을 대표하는 성악인들도 참여한다.

또 다함께 임동선 목사가 작사한 월드미션대학교 교가를 부르는 시간도 있다.

# 한마음선교교회 설립 1주년 맞이해

## 하나님의 사랑이 미국 땅에 임하길

하나님의 사랑이 미국 땅에 임하기를 바라며 개척된 한마음선교교회가 9월 10일 설립 1주년을 맞이해 감사예배를 드렸다.

담임 김경식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이재환 선교사(컴미션 국제대표)는 "왜 우리는 이런 유혹을 받지 않을까요?(벧후1:12-18)"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축도는 한인예수교장로회(합동) 캘리포니아노회 노회장 조성 목사(균타임스교회 담임)가 했다.



한마음선교교회가 설립 1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벤트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엇일까?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일 해결을 위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철저 정

**현대 HYUNDAI**  
Pueno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ga.com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서비스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 (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PCUSA 미국장로교 남가주 하와이 대회 KPC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세미나**

9월 21일 목요일  
**Sep. 21st Thur.**

장소 Place 토랜스 제일 장로 교회  
**Torrance First Presbyterian Church**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 Tel 310 618 2222 / Fax 310 782 0937

오후 세미나  
**2:00 PM** Prof. Joseph Small 전 PCUSA 총회 Director of Theology and Worship  
'The Great Purposes and Uncertain Future of the Church'

저녁 집회  
**7:30 PM** Dr. 김창환 현 풀러신학교 코리안센터 원장  
'개혁신앙 중심의 공적교회' (행10:1-8, 47-48)

**2017 500 YEARS Reformation**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33>

### 선교의 꿈을 키우는 젊은이들 이야기

필자의 교회는 5명의 EM 대학, 청년들이 있다. 아주 작은 수다. 그러나 그들은 일당 백의 하나님 나라 전사이다. 그들은 스스로 교회가 되는 청년들이다. 인원이 없어서 모이지 못한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둘셋이 있어도 아니 혼자 있어도 훌륭하게 예배를 드리는 청년이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담당한다.기도회도 갖는다. 그러면서 기회 되는대로 주변의 타민족 예배를 찾는다. 지난 주엔 롬비치에 있는 이집트 이민자들 교회에 가서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밤늦게까지 교제하고 왔다. 그들은 타민족의 예배를 이해하려고 애쓴다. 다녀와서 서로 예배에 대해 느낀 점들을 나눈다. 그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을 나눈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간지 2개월 남짓 지났는데, 현지 선교사로부터 한 장의 사진이 보내졌다. 이라크에 7명이 파송 받아가서 그간에 약 30여명 이상의 현지인 청년 친구들을 사귀었다.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했다. 그들과 함께 예배 후에 단체로 촬영한 사진을 보내왔다. 이 귀한 사진을 지면에 올리고 싶은 마음이다. 그러나 그 사역자들과 현지인 청년들의 사진이 공개되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못 올리는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바란다.

그들은 항상 연합예배에 익숙하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믿음 생활을 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 우선', '우리 교회 제일'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하나인 교회를 좋아한다. 우리 1세 교인들도 그렇다. 주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는 어떤 그룹과도 연합예배 드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깨달으려고 애쓴다.

이것이 필자의 목회 철학이다. 우리는 무슬림권에 선교를 가면 그곳에서 누구와도 연합하여 복음증거를 할 수 있다. 영적 전쟁터인 선교지에서 주의 군사들이 연합해야만 승리할 수 있음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 청년들은 이미 남미든 무슬림권이든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다양하게 경험하였다. 우리 교회의 2명의 청년은 대학생 시기에 1년간 헌신하여 대학생 선교사로 이집트와 터키 선교를 마치고 왔다. 그들이 온 후 2명의 청년들이 현재 이라크에 1년간 대학생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가 있다.

## 기독교 상대로 한 불교인 박해 증가

### 불교를 주요 종교로 믿는 국가들의 경우 더욱 심각

불교는 박해받는 종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비불교인들을 상대로 한 불교인들의 박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데일리 가 바티칸 관계자를 인용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불교를 주요 종교로 믿는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바티칸 특파원인 산드라 매지스터는 불교가 주요 종교로 자리한 아시아의 대다수 국가에서 비불교인들은 종교적 압제의 피해자가 된다고 전했다.

미얀마의 무슬림들로 구성된 로힝야 공동체가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다. 교황은 지난 8월 27일 성베드로 광장에서 가진 집회에서 이들에 대한 박해를 비판했다. 그는 “종교적 소수자들인 로힝야 형제들이 박해를 받는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다. 그들을 향한 나의 가까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우리 모두 주님께 그들의 안전을 위해, 그들을 돕는 이들이 많이 생겨나도록 기도하자. 주님은 그들에게 온전한 권리를 주실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시아의 인권 전문가인 베네딕트 로저는 내셔널지오그래픽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교황이 로힝야



미얀마에서 열린 기독교 행사 '러브조이피스페스티벌'에 참석한 아이 두 명이 기도를 받고 있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 페이스북 캡처

무슬림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낸 것은 전 세계 무슬림 국가들을 위한 메시지일 것이다. 교황은 방글라데시에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방글라데시는 기독교인들이 정부의 박해를 받는 곳”이라고 말했다.

미얀마는 최근 박해감시단체인 오픈도어선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박해국가순위에서 28위를 기록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베트남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한 박해는 지난 2016년 11월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당시 베트남은 지역 기독교인들의 종교 자유를 제한하는 '신앙과 종교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다.

라오스의 경우, 불교를 따르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그들의 문화에 위협적인 존재로 여긴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불법적으로 체포되며 심지어 사형에 처해지기도 한다. 부탄이나 스리랑카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이곳에서는 불교를 떠난 이들은 박해를 받으며, 승려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고 있다.

강혜진 기자

## 한국 순교자의 소리

### “스리랑카의 믿음의 형제자매를 보호하라”

#### 주한 스리랑카 대사에 한국 기독교인 1천여 명 서명 탄원서 제출

스리랑카 기독교인들을 향한 불교 승려들의 공격이 증가하자 지난 17일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기독교인의 종교 자유 인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에 전달했다.

이 탄원서에서는 스리랑카 정부가 폭력 가해자들을 기소하고 기독교인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스리랑카 교회 폐쇄 및 예배 중단이 근거로 오용되고 있는 부다 사사나와 종교 담당자의 광고 전단이 국회 입법에 근거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용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스리랑카에서는 교회 건물 등 록에 관한 법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지방 정부 관리들에 의해 이 광고 전단이 기독교인 차별 수단으로 사용되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우리는 모든 스리랑카 국민이 법에 따라

공평하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부다 사사나와가 발행한 광고 전단을 철회할 것을 스리랑카 정부에 요청한다”며 “그러한 조치는 스리랑카에 지속적이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 순교자의 소리 회장 현숙 폴리 박사와 에릭 폴리 대표는 5월부터 7월까지 한국 순교자의 소리 홈페이지를 통해 받은 한국 기독교인 1천여 명의 서명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했다. 영국 순교자의 소리 자매기관인 릴리스 인터내셔널(Release International)에서도 비슷한 캠페인을 진행해 현재 주영 스리랑카 대사관에 제출할 1만 명 이상의 서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리랑카기독교복음주의연맹(NCEASL)에 따르면, 소수 종교를 향한 공격 빈도가 증가하여 지난 몇 달간 기독교 예배 처소를 방해하고 공격한 사건이 40여 건 이상

발생했다. 2015년 현 정부 출범 이후 기독교인 종교 탄압은 190건 이상 일어났다. 스리랑카 헌법이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데도 지역 정부 관리들에 의해 이 같은 박해는 계속되고 있다.

폴리 현숙 한국 순교자의 소리 회장은 “한국과 스리랑카는 두 나라 모두에 평화를 사랑하는 불교 신도와 기독교인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포함해 많은 중요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의 스리랑카 형제자매가 스리랑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누리도록 정부가 그들을 보호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를 잊지 말라는 말씀(히 13:3)처럼 그들을 알고, 그들이 겪는 고통을 확인하였으므로 우리는 침묵할 수 없다”며 스리랑카 기독교인의 종교 자유를 인정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이지희 기자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 히브리식 사고 및 체현을 통해보는 테필린(Tefillin) 세미나

### “약속의 땅을 찾아 갑시다”

한국교회의 미래 대안을 형성하고 있는 히브리식 사고 및 체현을 통해 2세와 3세의 차세대 양육원리와 비전을 신명기를 통해 보게됩니다.

#### 특징

1. 히브리식 사고(3통 사고)로 쉽게 성경 원전해석
2. 히브리식 체현(5특 체현)으로 성경 원전해석
3. 미주 최초로 테필린 세미나를 통해 수천년간 내려온 유대인 교육에 숨겨진 비밀을 배움

- 강사 : 강신권 박사(토브성경원전연구소 원장, 테필린 국제강사)
- 일시 : 2017년 9월 21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기독교일보 컨퍼런스룸 (621 S. Virgil Ave. #260, Los Angeles, CA 90005)
- 교재비 : \$20
- 인원 : 20명 (\* 자리가 한정되어 있음으로 예약 바랍니다. )



강사: 강신권 박사  
Dr. Paul Kang

▪ 주관: 토브성경원전 연구소(Tov Bible Institute)    ▪ 문의: (213)739-0403, (213)434-1170

# 그리스도의 표적을 위한 기적들

## 마태복음 8:23-27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 1. 문둥병자의 사건을 통한 메시아적 증거

마태복음 8장은 1절부터 이적과 기적의 연속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육신은 인간, 영은 하나님이라는 신인양성(神人兩性)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로 알아보고 믿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모든 이적, 기적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로 믿어지게 하시기 위한 표적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밤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대화하시고 교통하시면서 그리스도로서의 소임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기 위한 준비를 단단히 하시는데, 문둥병자 하나가 그 전날 계속 예수님 가까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깨달음과 감동이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자기병 고침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놓칠세라 저녁에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실 때 그 뒤를 발칙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지점에 자리를 잡고 기도를 시작 하셨을 때 그 문둥병자도 거기서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내려오실 길목을 지키고 앉아서 기도하며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날이 밝아올 때 예수님이 기도를 다하시고 내려오시다가 길목을 지키고 있던 문둥병자를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그 문둥병자는 나와 절하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디”합니다. 이 함축된 표현의 간절함 속에는 자기는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문둥이인 자신을 위해서 오신 분으로 알아보고 믿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존재와 사명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로서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고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며 구원해 주실 예수님의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면 내 문둥병은 문제없이 고쳐 주실 수 있다는 것도 알고 믿어지지만 내가 문둥병 고침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예수님의 마음에 달려있음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의 절대주권을 100% 인정해 드린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의 말에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졌습니다. 이 기적도 예수님을 그 문둥병자가 알아보았고 믿어진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였다는 사실이 100%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 2. 백부장의 사건을 통한 메시아적 증거

문둥병자 일이 있고 난 후 예수님이 가

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고통하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은 예수님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마8:6)하니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하십니다. 그러나 그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삽나이디.”(마8:8) 합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군대의 과전 대장이고 그 사람 밑에는 100명의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군대 장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과 같은 사람이 있는 부대 안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길이 없다고 하면서 아주 겸손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처신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가극하고 겸손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자신의 하인이 나를 줄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마8:10) 하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찌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런 이적기사, 이것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적의 하나였습니다.

### 3. 베드로의 장모 사건을 통한 메시아적 증거

예수님의 제자들 중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빌립, 바돌로메는 베드로가 사는 벳새다라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 동네를 예수님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부지런히 찾아 가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이 제자로 데리고 다니시기 때문에 베드로 집에는 부인하고 아이들만 사는데 생활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 집에 생활비 좀 보내라고 돈 한 푼 주신 일도 없고, 가장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며 제자 노릇하느라고 집안 일을 돌볼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아내가 할 수 없이 친정 어머니를 오시라고 해서 그 가정에 봉사하시다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동네 소문이 나기를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가정을 버렸기 때문에 그 장모님을 모셔다가 자녀들을 돌보게 하고 가사를 도와달라고 하고 베드로의 아내가 부드러가게 가서 노동해서 품 팔아서 먹고 살게 되었다고 수군거립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12제자를 데리고 베드로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마8:15) 했습니다. 언제 이 사람이 앓던 사람인가 할 정도로 깨끗이 나아서 열이 싹 내리고 멀쩡하게 일어나서 물통 들고 우물에 가서 물 길러가니 다른 사람들이 놀라며 어찌된 일이나고 묻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이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졌고 날이 저물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으며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 주셨습니다(마8:16).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마8:17, 사53:4).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이적기사의 표적이 베드로가 살던 동네를 복음화시킬 수 있게 되어졌다다는 사실입니다.

### 4.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메시아적 증거

예수님의 이적기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구약시대부터 보내주신다고 예언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믿어지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며 웅위합니다. 그 때에 예수님이 무리가 자기를 둘러싸고 보시고 저 북쪽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기를 제자들에게 지시 하십니다. 그 때에 어떤 서기관 하나가 예수님 앞에 와서 큰절을 하고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좃으리이다” 했습니다.

서기관이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으로 구약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구약성경에 아주 통달한 연구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교법사로, 혹은 율법사로 호칭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거절의 말씀입니다. 물질기대심리와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 5. 풍랑을 잠재게 하심을 통한 메시아적 증거

본문 23절부터 보면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에 갈 배를 하라 하시고 예수님도 배에 오르셨습니다. 얼마쯤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갑자기 바다에 큰 태풍이 불어닥치니 파도가 산더미처럼 일어납니다. 그런데 배에 탄 제자들은 거의 다 갈릴리 출신이고 뱃사람, 어부들이었지만 풍랑을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도 이 배에 타셨다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다보니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편안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흔들고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디”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그 즉시 바람과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나라고 하는 그릇 속에 예수님을 모셨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믿고 맡겨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야 관계가 맞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쓰실 계획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야 관계에 있어서 나를 쓰실 계획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일들이 험통하게 될 것입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사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2017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은 목사 714)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0,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이동규 박사 학장: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 (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ua.edu  
www.chongshinusu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권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4055 Wilshire Blvd. #306-308, LA,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길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6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 아름다운 대화기술

“말은 많은데 대화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교회 등에서 대화 부재와 대화의 비효능으로 인하여 겪는 부작용을 자주 보고 듣습니다. 대화는 인격과 인격이 상호 교류하는데 한 사람이 본래대로의 자신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또 본래대로의 상대방의 모습을 알려는 기능입니다. 자녀들의 문제, 많은 자살, 우리 주위에 만연하는 Stress, 여러 가지 신체적이지 않은 질병들 그리고 정신적 문제에 따르는 육체적 질병 등 이 모든 것이 피해 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름다운 대화 기술의 권위자이신 여천기 박사님과 여명미 박사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반인반과 지도자 양성 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하오니 오셔서 강의 들으시고 행복한 삶으로의 변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강의 주제

1. 하나님께 진 빛, 아름다운 대화기술
2. 장벽을 허무는 대화기술
3. 예수님 식 대화 기술
4. 대화 기술은 인간의 능력
5. 하나님이 쓰시는 실력자
6. 옥토마음 가꾸기
7. 기타 자기 관리
8. 대화문을 단계 하는 언행습관
9. 우리세대의 대화 정서
10. 듣는 기술, 경청(귀담아 듣는) 기술
11. 대화습관
12. 말하기 기술
13. 심정 알아주기, 공감기술
14. “나 전달법” 내 마음(심정) 전달기술
15. 너 때문에 메시지(You-Message)
16. 인간관계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법 가이드
17. 심정표현과 감정표 사용
18. 지혜로운 질문기술
19. 격려하는 기술과 칭찬
20. 분노 표현 기술 Expression of Anger



여천기 박사  
CHUN KEE RYU, M.D

- TEACHING APPOINTMENTS
  - \* Clinical Assistant Professor in Psychiatry, UCI Medical School.
  - \* Assistant Professor in Psychiatry in Residence, UCLA School of Medicine.
  - \* Instructor in Psychiatry, Chicago Medical School.
- COMMUNITY SERVICE AND ACTIVITIES
  - \* Provide extensive psychiatric education through lectures and presentations to Korean community groups, including churches, LIONS, women's groups, alumni groups, and senior citizen groups.
- HOSPITAL PRIVILEGES
  - \* Western Medical Center, Anaheim, California.
  - \* St. Joseph Hospital, Orange, California.
  - \* Western Medical Center, Santa Ana, California.
  - \* Santa Ana Psychiatric Hospital, Santa Ana, California.
  - \* Fountain Valley Hospital, Fountain Valley, California.



여(김)명미 박사  
Myun g Mi Ryu, M.D

- 경기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968년 도미
- 미국 가정주치의 1977/ 임상병리학 전문의
- 미국캘리포니아 푸른초장의 집설립: 이사장/소장 1993- 2000
- 가주신학대학원, 예반젤리아 대학 강의
- 미주 복음방송 GBC / Radio Seoul 1650AM Guest Speaker
- 미국캘리포니아 ABC상담 대화교육원 설립 2009, 대표
- 저서 "이런대화가 삶을 바꾼다(공저)
- 상담 교육가/ 초청강사
- 뇌 정신질환과 정신건강(Mental Illness Ministry)교육자
- 미국캘리포니아 NAMI Family to Family 강사
- 대화강사 훈련강사

## ▪ 대화 지도자 7주 과정 (기독일보 주최 2차)

등록비 : \$200 \*수강을 마치신 분께 수료증 발급  
문의 전화 : T(949) 864-9162  
일시 : 9/16일~10/28일 (매주 토요일 오후 2:00~5:00)  
장소 : **얼바인 중앙장로교회**(담임 이기업 목사)  
17702 Cowan, Irvine, CA 92614

## ▪ 대화 지도자 5주 과정 (기독일보 주최 2차)

등록비 : \$200 \*수강을 마치신 분께 수료증 발급  
문의 전화 : T(949) 864-9162  
일시 : 9/19일~10/17일 (매주 화요일 오전 9:30~오후 2:00)  
장소 : **나성제일교회**(담임 김문수 목사)  
213 S.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 뉴욕-뉴저지 교계 휴스턴 허리케인 피해 돕기 한마음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 텍사스 휴스턴 지역에 심각한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홍석 목사)와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종국 목사)가 회원교회를 대상으로 텍사스 지역 피해 한인교회 돕기를 위한 모금을 적극 시행하는 등 휴스턴 지역 수해 돕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뉴저지교협은 최근 긴급임원회의를 통해 휴스턴 수재민 돕기를 결의하고 회원교회들에 공문을 발송해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인교회들을 중심으로 구호모금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뉴저지교협은 회원교회들을 비롯, 참여를 원하는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긴급임원회결의에 따라 뉴욕교협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가능한 보조를 맞춰 모금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성금 전달 방법과 통로는 가급적 한인교회 및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도록 했고 방법은 추후 논의해 시행하기로 했다. 모금 상황은 개인명, 교회명, 단체명을 전달 내역과 함께 신문지상에 공개해 투명성을 기하기로 했다.

성금모금 마감일은 9월 20일(수)이며 참여를 원하는 교회나 개인 및 단체는 P.O.BOX 205, Palisades Park, NJ 07650로 체크를 발송하면 된다. 체크 페이오더는 'CKCNJ'이다. 성금모금 문의는 이메일: njkoreanchurches@gmail.com, 전화 551-257-5001로 하면 된다.

뉴욕교협도 휴스턴 지역 피해 한인교회들을 돕기 위한 성금모금을 시작한 가운데 오는 8일 오전9시부터 오후4시까지 AM 1660 K-radio를 통해 모금 방송을 진행한다.

뉴욕교협은 휴스턴한인교회연합회를 통해 수재를 당한 해당 지역 한인이민교회를 돕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수재의연금 모금을 위해 뉴욕목사회(회장 김상태 목사)의 협조를 얻어 생방송 모금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뉴욕교협은 뜻 있는 회원교회 및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모금 생방송에 합

께 참여할 것을 요청했으며 참여를 원하는 교회 및 목회자는 8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15분 가량 출연이 가능한 시간을 뉴욕교협측에 알리면 된다.

문의는 방송국 718-352-1660, 생방송 본부 718-225-2660 혹은 뉴욕교협 사무실 718-279-1414로 연락이 가능하다.

뉴욕교협도 수재의연금 모금을 오는 9월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교회는 C.K.C. 앞으로 발행한 체크를 뉴욕교협 사무실로 보내면 된다. 이번 모금 진행은 사회분과위원장 김영환 목사(914-393-1450), 선교분과위원장 이재봉 목사(718-441-9651)가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PCUSA 소속 한인교회들의 연합체인 NCKPC(회장 지선묵 목사)도 한인교회들을 중심으로 수재의연금 모금을 진행, 교단 내 재해보조 프로그램(PDA)에 모금액을 전달할 방침이다.

총회장 지선묵牧사는 최근 서신을 통해 "한인교회의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 NCKPC 소속 한인교회의 이름으로 PDA와 지역 한인교회에 수재현금을 전달하기로 임원회의 의견을 모았다"면서 각 교회에서 NCKPC 앞으로 발행된 수표를 수재민을 위한 특별현금으로 9월 말까지 NCKPC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지선묵 목사는 "지금 당장은 휴스턴 피해 지역에 진입이 어렵지만, 위험이 지나가고 나면 아마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교회에서 휴스턴 수재지역 대상 단기선교를 계획해 손실되고 폐허가 된 교회당과 가옥 등을 정리하고 수리하는 일에 한인교회가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제안해 관심을 모은다.

지선묵 목사는 "이 일은 꼭 휴스턴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우리 한인교회들이 찾아 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움의 손길을 주고 온다면 그것이 전도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디딤돌선교회 노숙자 후원 자선음악회

## 디딤돌선교회, 노숙자 선교 자선음악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희망 안겨줘

디딤돌선교회(대표 송요셉 목사) 노숙자 선교 후원을 위한 자선음악회가 지난 10일(주일) 실로암한인교회(담임 신윤일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음악회에서 송요셉 목사는 "지금도 굶주림 가운데 떠도는 노숙자들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이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들을 환영한다"고 당부했다.

음악회는 솔리데오 합창단, 마림바 연주, 첼로 연주, 소프라노 독창, 금관 5중주, 남성 사중창단, 그리고 디딤돌선교회 SSM남성 노숙자 찬양단 등이 출연해 가스펠 및 가곡,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사했다.

솔리데오 합창단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시작으로 권은정 씨의 'Marimba Famenca' 마림바 연주가 이어졌으며 김

현희 소프라노가 '남촌'과 경쾌한 사랑의 아리아 '기사의 뜨거운 눈길'을 선보였다.

4인조 가스펠 중창단 마이티 윈드는 'Amazing grace', 재즈곡 'Up a lazy river', 가스펠 'I am feeling fine'을 독특한 음색과 멋진 화음으로 선사해 관객들의 환호와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서 디딤돌선교회 소개 동영상과 사역보고가 이어졌다.

유예녹 이사장은 "가난해 노숙자가 된 이들도 있지만 살아가야 할 이유를 모른 채 방황하는 영혼들도 많다. 디딤돌 사역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디딤돌선교회 SSM남성 노숙자 찬양단은 'Amazing grace', '10,000 Reasons', 'Because he lives'를 찬양했다. **윤수영 기자**

## 뉴욕교협 제44회기 회장 입후보 등록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홍석 목사) 차기 회장·부회장 및 감사 입후보가 11일부터 시작됐다. 등록기간은 오는 15일(금) 오후5시까지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하는 입후보자 자격조건은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자의 경우 뉴욕교협 가입 5년 이상된 자로 회비 체납이 없

어야 하며 목사 안수를 받은지 10년 이상이 돼야 한다. 또 뉴욕에서 담임 목회를 만 5년 이상 한 자로 뉴욕교협의 임원 또는 실행위원을 역임해야 한다. 회장 및 부회장은 출마 기회가 3년 이내로 제한되며 현 회장과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할 수 없다.

# 교회 연합 선교 교회

**LA 지역**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培育和 영적 성장을 위한, 이민가정을 지원하여, 선교영광을 추구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장태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

**한현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세배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강진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엘리아 김** 담임목사

주일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시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서건오**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일한국학교 토 오전 10:00-오후 1:00  
한어장년부 오후 1:30 오형이 어학 오전 11:00-오후 6:00

**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이 넘치는 교회, 복음을 알리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cl.org

**박헌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장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천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김민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강양구**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주일 2부 오전 11:00 세안만민교회 토요일 오전 9:30  
수요큐어모임: 저녁 7:00 교회학교(Child Youth): 매주 주일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저녁 8:00

**남가주 새언약교회**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도하는 교회  
3407 W. 6th St, #601, #620, LA, CA 90020  
T. (213)434-1083 www.new2011.org

**김중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9: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5:20 (월-금)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h@hotmail.com

**정장수**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분양)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양)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양)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에(말씀예배) (소매예배) 오전 11:00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몸, 영예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도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이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청운교회**  
선교에 호를, 소.친 초 정신의 호를, 바른교회관의 호를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블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hyun.org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오전 6:00 (토)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강지원**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애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윙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church.org

**신용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나성한미교회**  
축복의 통로되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십자가 공동체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New Hope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조용철**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김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일한국학교 오전 10:00-오후 1:00

**무리에타 한인장로교회**  
믿음과 충성으로 서자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성경강화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 OT 월-금 오전 6:0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9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하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종보기도모임 오전 10:3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신임 임원들이 단상에 도열해 있다.

## 대신 김동성 총회장 “이탈 교회, 아무 조건 없이 받을 것”

“연합기관 활동도 재개할 것” 기자회견에서 밝혀

11일 시흥 배곧신도시 소망교회(담임 이정현 목사)에서 개막한 예정 대신 수호 측 제52회 총회 총회장 김동성 목사(화성 중앙교회)와 부총회장 안태준 목사(등대교회)가 첫날 회무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동성 총회장은 “개척정신을 갖고 교단을 다시 세우 나가고자 한다. 잘 아시는 대로 교단이 둘로 나뉘진 이후 지난 두 회기 동안에는 최우선 과제가 ‘수습’이었다”며 “아직 항소 과정에 있고, 해결될 때까지 서로 힘을 모아 교단을 ‘리빙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리빙딩이라는 게 쉽지 않다. 자원도, 인력도 필요한 일”이라며 “새 임원들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심승수 이후 저희의 정체성을 알리는 일에 탄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이번 판결 후 다시 한국교회연합에도 총대를 파송하는 등 합류한 상태이다. 오늘 총회에 한교연 정서영 대표회장님도 인사하러 오셨다”고 했다.

교단을 이탈한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돌아오신다면 언제든 받아줄 마음이 있고, 받아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정치적 세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신 분들도 있을텐데,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저희 총회는 노회가 중심이기 때문에, 각 노회들과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한다”며 “노회를 통해 받아들이는 것이 방법”이라고 했다.

판결 이후에도 구 백석측이 ‘대신’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에 대비해 사용금지 가처분이나 다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사업에 대해 김 총회장은 “분열 문제 후 열악한 환경 탓에 제약이 있었지만, 저희 교단은 한창중 설립에 일조하는 등 연합활동에 적극 나선 역사가 있다”며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구 백석 측의 방해 아닌 방해가 걸림돌이었으나, 1

김진영 기자



개회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총회 제공

## 기하성 여의도 동성에·동성혼 합법화 적극 반대

제66차 총회 및 지방회 임원수련회 제주도에서 개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순복음총회)에서 지난 9월 3-5일 제주도 한화리조트에서 제66차 총회 및 지방회 임원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원수련회에는 총회 산하 전국 교회가 동참, ‘동성에·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할 뜻을 밝혔다.

선출돼 생긴 결원에 대해 세계선교위원장 강동인 목사가 추천을 받아 실행위원 자격을 인준받았다.

이번에 인준 받은 7대 위원장은 교단 발전정책위원장 최성규 목사, 헌법위원장 조승렬 목사, 고시위원장 권경환 목사, 재판위원장 고종진 목사, 세계선교위원장 강동인 목사, 선거관리위원장 송한영 목사, 예산위원장 김은수 목사 등이다. 총회 부임원은 부총무를 제외하고 부서기 이상준 목사, 부재무 백요셉 목사, 부회계 채지석 목사가 인준을 받았고, 서울감남 지방회장 신소걸 목사가 지방회장 실행위원 자격을 인준 받았다.

제주도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총회 임원과 50개 지방회 임원 등 약 3000여 명의 오순절 목회자들이 함께했다. 행사는 4일 오전 제주 연동 신라스테이 미팅룸에서 임원회로 시작됐으며, 이후 제주 한화리조트로 옮겨 개회예배와 세미나, 제2회 정기실행위원회, 성령대담회 등이 진행됐다. 5일 새벽예배 후에는 임원들은 지역연합회 모임을 갖기도 했다.

4일 개회예배에서 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엡 5:18-21)’를 제목으로 설교한 후 ‘순복음 신앙의 뿌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인도했다.

이후 총회 실행위원회에서는 ‘성령운동에 앞장선 기하성 교단은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며 적극적으로 막아낼 것’이라며 “오는 10월 동성에·동성결혼 개헌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기독교인들의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고 전했다.

실행위원회에서는 제66차 7대 위원장 중 엄기호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실행위원회에서는 교단 헌법 개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헌법 특별개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각 지역회에서 헌법 전문인들을 추천받아 13명 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이태근 목사가 맡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4일 저녁 엄기호 목사(한기총 대표회장)가 인도한 성령대담회와 5일 지역연합회로 마무리됐다.

총회는 오는 10월 16-17일 오산리기도원과 영산수련원에서 ‘총회 연합수련회 및 단합대회’를 개최한다. 수련회에서는 △총교인 과세 관련 법률 특강 △동성애·동성결혼 개헌 반대운동 관련 특강 △교회회교 관련 특강 등이 준비된다.

김진영 기자

### 사우스베이, 토렌스, 가디나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종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2부예배(EM) 오전 11:00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모이는 교회, 흠뻑이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절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및/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일성경대림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석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연 오후 2:00  
금요일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 오후 7:30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 (310)715-9902

###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케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찬양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친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일성경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절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6:00(토)

**곽력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재가 되어 3300 세계비전을 이루는 성령공동체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LA예배처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부흥회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월-토 5:00am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19514 Franklin St., Northridge, CA 91328 3480 Wilshire Blvd. Ste 700, LA, CA 90010  
T. (818)363-5887 Tel: (213) 232-3163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 O. C. /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기도회 9:00pm  
(2부) 1:30pm 금요일찬양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다름날) 7:00am  
화요일중보기도회 7:00pm 토요일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일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찬양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찬양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며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정동성 담임목사**

**나성교회**  
Nasung Church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www.nasungchurch.net





이라크의 기독교인. ©오픈도어선교회 제공

# 이라크 기독교인들 1,500가정 카라코시로 귀향

## 현지 신부, 복구 비용 지원하며 정착 도와

이라크에서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로부터 강제 추방당했던 기독교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박해감시단체인 월드와치모니터(World Watch Monitor, WWM)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카라코시에 거주하는 한 신부가 ‘지원 및 격려 센터’(Center for Support and Encouragement)를 통해서 이들의 귀향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조지 신부는 IS 때문에 폐허가 된 집들을 일으키는 일을 돕고 있으며,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선별해 재건축 비용을 직접 전달하고 있다.

지역 주민인 그는 “하루에 50명 정도가 우리 센터에 등록하고 재정착 비용을 지원받는다. 더 많은 이들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카라코시 시리아가톨릭대주교인 요한나 페트로스 무쉬 신부는 WWM과의 인터뷰에서 “난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당신이 마을 주변을 둘러본다면, 생명이 다시 돌아오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카라코시에는 약 1,500 가정이 돌아왔다. 이는 IS가 침략하기 이전 전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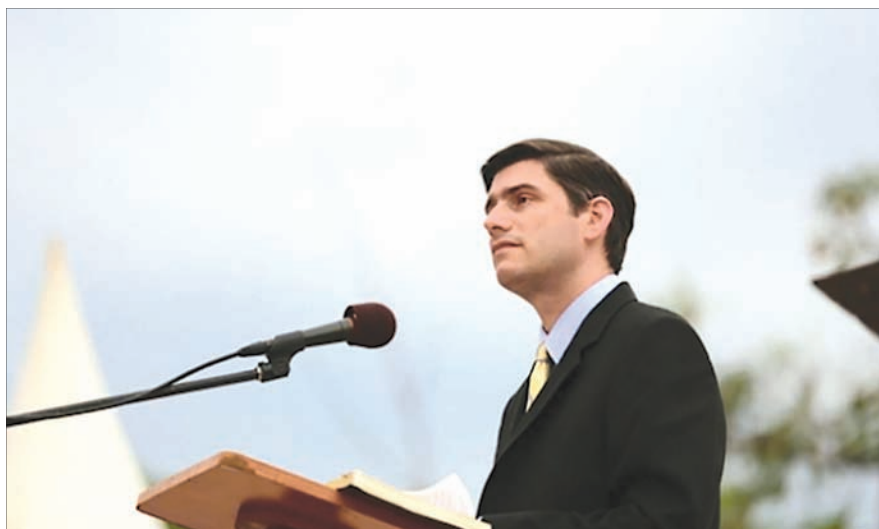
독교 인구의 20% 정도다. 그러나 이라크 일부 지역은 여전히 절망적인 모습이다. 울출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이라크 기독교 인구의 50%가 마을을 떠났다. 많은 이들이 이라크 쿠르디스탄 지역으로 떠났다. 이 지역은 오는 9월 25일 독립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드다드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꺼리고 있다. 바드다드의 경우 지난날 8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 상점 주인들은 보호세를 내야하고, 기독교인 소녀들은 위협에 노출돼 있다.

이번 보고서는 영국의 프리티 파텔 국제개발부장관이 “미국과 영국 정부는 이라크 기독교인들을 지원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며 “이들은 집에서 쫓겨난 채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한 후에 나왔다.

WWM은 “니네베 평원의 기독교 마을과 가정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긴급 자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IS를 피해 쿠르디스탄으로 떠난 대부분의 이라크 기독교인들은 영원히 이라크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빌 그래함 목사의 손자 윌 그래함 ©BGEA

# 빌리 그래함 목사의 손자 영화 ‘언브로큰’ 속편 출연

## 루이 잠페리니의 삶 조명한 영화

루이 잠페리니(Louie Zamperini)의 삶에 기초한 영화 ‘언브로큰: 패스 투 리DEMPTION’(Unbroken: Path to Redemption)에서 빌리 그래함 목사의 손자 윌 그래함이 그의 할아버지인 빌리 그래함 역할로 출연할 예정이라고 8일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언브로큰: 패스 투 리DEMPTION’은 잠페리니의 신앙에 초점을 맞춘 예정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영웅으로 알려진 잠페리니의 일대기를 그린 베스트셀러 ‘언브로큰’에서 그는 전쟁 후 기독교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지난 2014년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베스트셀러와 같은 이름의 영화를 제작하면서 흥행 수입 1억 6천 5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이 영화에는 잠페리니가 전쟁 후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사실 등은 다루지 않았다. 그가 전쟁포로였을 때 그를 고문했던 일본인을 용서하는데 영향을 주었던 것 역시 신앙이었다. 그러나 ‘언브로큰: 패스 투 리DEMPTION’은 졸리의 영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속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화는 최근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촬영을 시작했다.

첫 번째 영화와 이번 영화 역시 로라 힐렌브랜트(Laura Hillenbrand)의 베스트셀러 언브로큰(Unbroken)을 기반으로 한다. 이 책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4년 이상 이름을 올렸다. 힐렌브랜트는 “미국 올림픽 선수, 2차 세계대전 항공기 조종사 등으로 살았던 루이 잠페리니의 삶은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회복력과 독창성, 은혜와 인성, 용서와 신앙의 구

원의 힘에 관한 교훈을 주는 삶이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영화로 보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책에 의하면 잠페리니는 1949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빌리 그래함의 집회에 참석하고 기독교인으로 회심했다고 한다. 제작자 빌 리브스는 “관객들은 루이 잠페리니의 두번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그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고 깊은 개인적인 투쟁을 극복한 뒤 궁극적으로 그를 고문했던 자를 용서했는 지는 영감을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소개했다.

잠페리니는 2011년 옵서버(Observer)와의 인터뷰에서 1949년의 집회를 회고하면서 “빌리 그래함의 메시지가 나의 눈을 뜨게 했다. 나는 떠나는 대신 기도실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는 밤이었다”고 회심 경험을 밝혔다.

잠페리니는 이후 수년 동안 그래함과 연락을 유지했으며 그의 성회에서 특별 연설자로도 활동했다. 할아버지 역할로 영화에 출연하게 된 빌리 그래함의 손자 윌은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처럼 전도에 대한 부름에 응답할 수 있게 된 것이 복”이라며 “루이 잠페리니의 삶에서 빌리 그래함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기에 이 고무적인 이야기에서 그를 묘사하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학교 11:00 AM **이원준**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11:00 AM 새벽예배 화-금요일 5:30 AM  
 주일 3부예배(영어) 1:30 PM 토요일 8:30 AM  
 금요찬양예배 7:30 PM

**남가주가스펠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email: 8132gospelchurch@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 초, 중부 예배 오전 11:00  
 토, 요, 새벽예배 오전 6:00 설거주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88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2:20 **민승기**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 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빈**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C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은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 (청년 영어) **박경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 (토)  
 4부예배 오후 1:30 (청년 한국어) 청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 (청년 영어)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 7:30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 중, 고 목요 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일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김인철**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일본어 예배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Orange Cannan Presbyterian Church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 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 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 오전 5:30 (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 (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삼일이 예배 :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 :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토기장이교회**

1937 W. Chapman Ave. #105, Orange, CA 92668  
 T. (714) 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 info@Pottersccc.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PASTOR JUSTIN KI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PASTOR HAROLD KI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PASTOR JAMES KWAK**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 9:30 AM **PASTOR RONNIE PARK**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PASTOR SAM KOH**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ola.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L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PASTOR STEVE CHANG**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 위한 제24회 찬송가 경연대회

올해로 22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하므로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섬겨주실 봉사자와 동역자 구합니다.**

###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장소 :**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시간 :** 2017년 12월 16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L.C.D

### 협찬

가주치과 대표 오덕재 원장, 나성열문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LA사랑의교회, 마동환 변호사 그룹, 팔가순대, 뉴욕제과, 한솔종합보험, 한인동포재단, OC 한인회 행복재단(한영재), 라이온스클럽, 올림픽 칼국수

**후원** 기독교일보, FH미선

##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 (213)870-8474/ Fax:(323)870-5522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Email :** mrjacob601@hotmail.com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 LA 예담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담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담교회 담임목사

## 남가주 한인 장로협의회

Korean Christian Elders in California

### 제11회 선교와 이웃돕기 위한 사랑의 찬양제

초가을에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참가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 행사에 함께 하는 교회와 단체

1. 충현선교교회 (지휘 : 이삼열)
2. 남가주사랑의 교회 (지휘 : 이영진)
3. 인랜드교회 (지휘 : 정현관)
4. 나성성결교회 (지휘 : 신영안)
5. 오렌지 미션 콰이어 (지휘 : 장진영)
6. 이화여대 동문 합창단 (지휘 : 이종현)
7. 남가주장로성가단 (지휘 : 조성환)
8. 남가주장로성가단 중창팀 (지휘 : 조성환)
9. 목사 장로 부부 성가단 (지휘 : 이재경)
10. 미주 여성 코랄 (지휘 : 오성애)

# 헌금송 : 산성교회(아리조나)어린이 찬양팀

- **일시 :** 2017년 9월 24일(주일) 오후 5시 30분
- **장소 :** 인랜드 교회 (담임:박신철 목사)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 **문의 :** (949)228-6042, (909)319-2158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회장 한철수 장로

## 여자가 용을 이길 수 있는가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믿음입니다. 역사는 우연으로 구성된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완성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성도들의 시각입니다. 그 역사의 의미, 역사의 동기와 목적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곧 “역사철학”(philosophy of history)이라는 영역이며, 이로서 문명의 발전과 세계질서의 변화를 조망하고 이해하려고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역사를 연구하면서 가장 고전적인 관점에서 역사의 의미를 주장한 사람은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의 중간에 서있는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역사를 “하나님의 도시와 땅의 도시의 갈등”으로 읽었습니다. 근대에 들어 사상가 헤겔은 “절대정신의 자기 전개과정”이라고 역사를 관념적으로 재해석하려고 했습니다. 헤겔을 비판하는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노동과 소유를 중심으로 발생한 “유산자와 무산자의 계급갈등”으로 역사를 재해석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역사를 조망하는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은 역사의 시작과 끝을 말하고 있으며, 그 역사의 의미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

상하고 있는 계시록 12장은 놀랍게도 그 복잡하고 다양한 역사의 전개로 “여자와 용의 갈등”으로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여자는 용에 의해, 즉 사탄이요 마귀요 옛 뱀의 미혹에 의해 타락하였던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은 여자와 용의 후손을 통하여 용과 그 하수인들을 무찌르는 종말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위엄있는 여자로 상징되어지는 구약 교회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지상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참소하는 용과 그 타락한 천사들을 하늘에서 몰아냅니다.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에게 도전하면서 죄로 종이 된 인간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던 용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와 부활의 능력으로 근거를 상실하여 지상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용은 자신의 소유물로 주장하던 사람들을 이들의 복음을 통해 또 다시 상실합니다.

전쟁의 패배로 분노한 용, 즉 사탄은 아이를 낳은 여자와 그 남은 자손에 대하여 핍박을 시작합니다. 분노한 용 곧 마귀는 곧 신약교회인 여인을 핍박하고 물에 흘려보내려 하나, 하나님은 이 여인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 광야에서 여인은 보호되고 양육받으며, 여인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인 1260일 동안 핍박과 유혹을 견뎌냅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는 이 세상을 장악하고 공격하는 용과 비교할 때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용에게 다시 패배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아들이 사탄의 권세를 패배시켰고, 미가엘과 하늘의 천사들이 사탄과 그 추종자를 땅으로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양의 능력으로 여자는 용을 이깁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사탄에 대하여 승리합니다.

##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구약 성경에는 인간의 정의를 찾기에 필요한 많은 구절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형상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창세기 1:26-27절의 말씀일 것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1:26-27)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실 것을 의도하셨고 선언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인간의 형상과 모양의 개념에는 각각의 견해와 해석에 따라서 실제적 형상관(Substantive View), 관계적 견해(Relational Views), 기능적 견해(Functional View) 세 가지 다른 정의로 설명된다.

첫째, 실제적 형상관이란 인간의 형상은 인간의 본성 그 자체 안에 있

녀와 칼바르트 같은 신학자들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날 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능적 견해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이 행하는 어떤 것으로 구성된다는 사상이다. 이것은 인간이 행하는 기능으로서, 피조물에 대한 지배를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 언급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결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은 인류 안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으며 인간은 이 관계 안에서 행동하고 이 기능을 수행할 때 가장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형상은 인간이 소유하고 있거나 행하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 강력한 허리케인



김성민 목사  
펠리세이드교회

역사에 기록된 만한 허리케인 하비(Harvey)의 강타로 휴스턴 부근에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이 있었다. 그러한 중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허리케인이 계속 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이런 재난의 소식들에 언론들은 “대피하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대피하지 않고 “이번에도 그냥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듣고 지금은 하늘이 너무 맑으나 곧 큰 폭풍이 온다는 말을 믿고 벌써 가족들과 함께 멀리 대피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은 2-3일 전부터 준비하고 떠난 것이다.

이 뉴스를 들으면서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도 같은 이유이기 때문이다. 떠나라는 것이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오니 그 자리를 떠나고, 하던 우상 숭배를 떠나라는 것이다. 곧 멸망하게 되는데 그 때에는 다소 멀고,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를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사야 14장 23절)을 전하기 위해서이

다. 이 말씀을 전해들은 그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다. 아직 그들에게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오히려 더욱 교만하고 분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하여 멀리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멸망의 빗자루를 맛보고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 것 없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분명하게 들린 예언의 말씀이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버렸기 때문이다. 허리케인의 소식이 올 때에 듣기만 하면 살 수 없다. 그 말을 듣고 살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괜찮다고 하는 것은 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에스겔 14장 6절)라고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들려진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분명 마지막을 향하여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할까? 나의 경험을 통하여 능숙하게 이번에도 폭풍을 견딜까? 아니면 소식을 따라서 피난을 갈까? 사람들의 상황과 사연이 서로 다르겠으나 가장 좋은 길은 피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혹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쳐주신 믿음의 벽 안에서 자유하며 피난할 때에 그 인생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 세대의 교회가 피난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믿음의 가정이 그 일을 잘 감당할 때에 폭풍이 오나 겁낼 것 없어질 것을 확신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한복협 월례회서 김상복·이정의·손인웅·박종화 목사 발표

# “목회는...” 은퇴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하고픈 말

성공적으로 목회를 마무리한 은퇴 목회자들이 후배들에게 당부와 권면의 말을 전했다. ‘은퇴자로 후배 목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는 주제로 화평교회(담임 이광태 목사)에서 최근 열린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김명혁 목사) 9월 조찬기도회 및 발표회에서다.

### 목회는 종합예술... 설계도 있어야

먼저 김상복 목사(할렐루야교회 원로)는 ‘예수님처럼’을 강조했다. 그는 “목회는 종합 예술이다. 예배, 교육, 전도, 친교, 섬김, 행정, 건축과 같은 교회의 기본적인 사역을 원만하게 수행하면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신앙과 생활과 사역의 중심을 언제나 예수님께 두고 주님이 명하신 사역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며 주어진 기간 동안 주님의 교회를 성도들과 함께 튼튼하게 세워야 한다”며 “분명한 목회 설계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듯(마 4:23),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목사가 하고 동역자인 성도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훈련하여 교회를 세워야 한다”며 “목회자와 성도들은 주님의 동역자들이다. 사역자들은 기도를 통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전도(마 28:19-20)와 사랑(요 13:34-35), 목회(요 21:15-17) 등에 대한 예수님의 계명을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수행하도록 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사역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사역(담전 4:12-16)이다. 내가 나를 돌보는 것이 우선이다. 내가 잘 되어가고 있는 사역은 유익을 줄 수 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내게 있는 것뿐”이라며 “누가 봐도 우리가 주님의 걸작품(엡 2:10)이 되어가고 성도들에게도 인정받는 것이 목회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했다.

김 목사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려 노력해 왔다”며 “그 분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 분의 가르침을 잘 알 뿐 아니라 따라가고 그 분의 삶과 섬김을 본받아 우리가 그 분처럼 섬기고 그 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과 사역, 사역의 방법마저 세밀히 그 분에게서 배워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 기도와 성경 연구 몰두하고 영력 구비해야

이정의 목사(신촌성결교회 원로)는 ‘목회를 마치고 지난 사역들을 되돌아보니 만족한 마음보다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모든 은퇴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라며 ‘열정과 합리적인 목회’라는 제목으로 ‘소명에 충실하라, 하나님 목회를 하라, 영성에 충만하라, 상식이 있는 목회를 하라, 지도자성을 발휘하라’ 등 5가지를 소개했다.

먼저 ‘소명에 충실하라’에 대해서는 “소명이 분명한 목회자는 열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다”며 “목회는 주께로부터 위임된 사역이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성심껏 수행해야 한다. 이 부분이 분명하면 행복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나님 목회’는 “오늘날 목회현장에는 비본질적 요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과시적이고 인간적이고 권위주의적 목회가 너무 많다”며 “교회 성장이 좀 늦고 경쟁에서 발전이 좀 늦어지더라도 본질을 잊지 않는 목회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목회가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영성에 의해 사역해야 하는데, 오늘날에는 대부분 지성 위주의 목회를 하고 지식과 정보와 이론이 너무 앞선다”며 “기도와 성경 연구에 몰두하고 영력을 구비해야 한다. 영성 없는 목회는 변화와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가난한 성도’를 양산할 수 있다”고 했다.

‘상식’에 대한 “한국교회가 말이 많고 갈등이 많은 이유는 합리성이나 상식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목회자들의 금전 거래 불투명성이 가장 두드러진다”며 “마음대로 돈 쓰는 것을 권위로 생각하지 말라. 재정에 대한 합리성이 없으면 반드시 불분명의 폐해를 겪고 지도력 상실로 이어진다. 원로와 후임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로, 원로들의 끊임없는 욕망과 후임자의 지나친 견제는 비상식적 관계로 발전해 교회를 병들게 한다”고 권면했다.

마지막으로 “목회 지도자는 좌우에 지나치게 편향되거나 지역감정에 치우치는 편협함을 극복하고, ‘내 교회, 내 교단, 내 신학’이라는 도그마를 극복해야 한다”며 “목회자들이 지도자성을 발휘하려면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영혼의 그릇이 커야 하고 의식이 미래지향적이며 긍정적이어야 한다. 목회자들은 하나님 사랑을 목회현장에서 구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 발표회가 진행되고 있다.

붙였다.

### 고난과 목상 가운데 걸어올린 말씀

손인웅 목사는 “은퇴자라도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소중하게 간직해 역사발전에 기여해 주길 바라는 경우도 있는데, 후배들의 이러한 요청이 있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며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성직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종신직 개념이다. 성직자는 평생 치열한 과정을 마치고 선종(善終)함으로 일생이 아름답게 마무리된다. 십자가를 거부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자는 처음부터 이 길을 택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 목사는 “후배 목회자들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확립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상을 새롭게 하는 목회를 통해 세계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길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회가 화목한 가운데 잘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임자가 이룩놓은 아름다운 전통을 잘 지켜 나가면서, 새로운 변화를 두려움 없이 수용하여 아름다운 전통 속에 항상 새로워지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해야 한다”며 “은퇴목사가 전문적으로 잘 해야 하는 일은 격려와 칭찬임을 잊지 말자. 비난과 책망은 적극 피하고 꼭 필요한 말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고맙게 받아들이도록 하여 피차 덕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은퇴 목회자들에게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문해오는 일은 성실히 해결하도록 노력하되, 생색내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과

담임목사에게 돌려주도록 하자. 어떤 경우라도 교회에 짐이 되지 않겠다는 각오를 굳게 하고, 후임 목회자가 잘 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서서히 사라질 준비하며 세례요한처럼 자신을 철저히 비워야 한다”고 했다.

후배 목회자들에게는 “성급하게 인터넷 등에서 찾은 자료가 아니라, 깊은 고난과 목상 가운데 걸어올린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목회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겸손해서 잘못되는 경우 없다. 어찌 됐든 겸손해야 한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계속 내려오는,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많은 변화와 생명을 낳으며 넓은 바다로 나아가 모든 것을 고르게 하고 평화를 이루는 ‘물 같은 목회’를 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 오래된 새 찬송, 성경으로 신문 해석

박종화 목사(경동교회 원로)는 후배들에게 “오래된 새 찬송”을 부르는 목회자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옛 가락이 맞출법이나 정서에 맞지 않는다 해서 정감과 감동이 물론 들어있고 부르면서 은혜를 받는 가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차라리 새 가사나 가락을 계속 덧붙여 풍성한 찬송가를 만들어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쓰는 찬송가도 이렇게 발전시켜 시대적 토막의 풍성한 은혜를 담은 절수가 많은, 풍성한 찬송가로 만들어야 한다. 목회도 이처럼 계승과 창조가 아름답게 이뤄지는 ‘오래된 새 목회’로 귀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요즘 보면 시골 교회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이 전체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적지 않다”며 “목회자는 교회 규모와 상관

없이 출석 교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개교회(local church)’이지만, 개교회 이름으로 보편 교회, 세계 교회, 공교회를 목회한다는 책임과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영적인 것뿐 아니라 윤리·도덕적으로 훌륭해야 하고, 노블리주 오블리제 원칙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이라는 말을 즐겨 인용하는데, 칼 바르트는 그 다음에 ‘설교로 신문 이야기’를 해석하고 판단해 주라’고 했다”며 “성경 말씀으로 답을 줘야 하는데 목회자들에게 시간이 모자라는 만큼 이를 위한 평생 신학교육 기회가 필요하다. 설교를 통해 역사의 현장에 대한 성경 말씀의 정당한 판단과 살아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성도들의 실천적 신앙생활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 처절한 회개, 온유와 겸손, 친밀한 소통

발표 대신 지면으로 권면을 전한 김명혁 목사(강변교회 원로)는 “바람직한 목회지도자는 처절한 회개와 하나님 말씀 사모를 몸에 지닌 사람, 온유와 겸손과 따뜻함을 몸에 지닌 사람, 친밀한 소통과 사랑의 섬김을 몸에 지닌 사람, 화해와 평화와 하나됨을 몸에 지니고 이루는 사람, 가난과 고난과 슬픔을 몸에 지닌 사람”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예수님을 비롯해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참으로 귀중한 주님 닮은 삶을 사셨다고 생각한다”며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모두 바람직한 목회 지도자의 삶을 아주 조금이라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한다”고 전했다.

Since 1999
www.e-nca.org




**LA 학부모님,  
아직도 학군 따라  
이사가십니까?**

**오픈하우스**  
11월 2(목) 7:00PM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갖춘 명문사립 NCA가 있습니다!**

- 졸업생 전원 아이비리그 및 UC 계열대학에 진학하고, 타 사립학교 대비 월등히 경제적인 교육비로 소수정예의 교육이 가능한 NCA에서 가르치십시오.
- 졸업생 평균 GPA 4.34 및 SAT 평균 1,350점 기록(일반 학교 평균 1,000점)
- 지난 19년간 전 졸업생이 UC 계열과 유수의 명문대학에 진학
- LA에서 유일하게 국제학사(IB) 및 AP 프로그램 동시 실행
- 학생과 교사 비율 평균 10:1로 소수정예의 질 높은 교육 환경
- 새 학기 보충수업 위주의 썸머스쿨 운영(필드트립 등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 편리한 교내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운영
- 미주 최초 한인이 설립한 비영리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영성 함양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K-9th 모집**

**무료 앱 다운로드**



**입학 문의 (213) 487-5437**

**NCA 킨더가든 모집**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 의사 Zo'e 조애**  
 한의사 Zo'e 조애  
**Tel: (213) 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 8th St, #208, LA, CA 90057(8th & Lake St.) (일수도 예약 필수)

**CD PRINTING** 323.265.0244 junimedia@gmail.com www.junimedia.com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프린트CD + CD 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 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회비: 월 \$10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문의: 213.392.2323

**인하소반주** 각종 김치  
**626-731-7864** (\$40이상 주문시) 무료배달  
 갈비만두, 매운갈비만두 (40개 \$20)  
 김치교자, 부추교자 (50개 \$20) 왕만두, 팔짚빵 (10개 \$10)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 (213) 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 580-2424 (310) 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 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최신장비 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류마티스 관절통증 }  
 ✓ 발가락 { 퇴행성 관절통증 }  
 ✓ 마디관절 { 손목, 발목 질환 }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우울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만성두통, 요통  
 • TMJ 턱관절 장애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한달 \$50** 배 빠는 속변역!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 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월~금: 10시~5시 / 토 10시~2시

**2018 NEW CALENDAR**

**Best Seller**  
**2018 성경 통독 도우미 달력** 최소 100부 \$3.5 ea  
 주님미디어 323.265.0244

주님과 함께하는 열두달의 삶을 컨셉으로 만들어진 주님미디어의 2018년 달력은 두가지 버전으로 준비 되어 있습니다.  
 일반캘린더와 1년통독달력으로 원하시는 것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기본수량은 100부이며 다른수량을 원하시는 교회나 공공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시면 바로 상담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님미디어에서 승리하시고 기쁨의 2018년도를 준비하시길 기도합니다.

**323.265.0244**

캘린더 180mm x 160mm

70mm x 250mm



항구 가이사라와 이곳에 있는 십자군 시대의 성채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42)

# 이방인 선교의 시작 - 가이사라

로마 시대 이스라엘의 최대 항구 도시 시저리아(Caesarea)의 국립공원으로 가려면 북부 최대 항구도시 하이파에서는 2번 고속도로를 타고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남진하면 된다. 약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텔아비브에서는 40분이 소요된다. 그래서 시저리아는 하이파와 텔아비브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 인공적으로 잘 만들어진 항구

이스라엘에는 '시저리아(가이사라)'라고 불리는 두 곳이 있다. 한 곳은 헤르몬 산 남쪽 능선에 위치한 가이사라 빌립보(Caesar Philippi)이다. 이곳은 파니아스(Panias)라 부른다. 또 한 곳은 바로 이곳 지중해변에 있는 시저리아(Caesarea)이다.

시저리아는 주전 4세기에 시돈의 통치자였던 스트라토가 처음 설립한 도시로 스트라토의 망대(Strato's Tower)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이 도시는 주전 259년 이집트 프톨레미 2세의 신하인 제논의 문서에 처음으로

로그 이름이 언급되었다. 이 항구는 헬라 시대에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BC90년에 알렉산더 야누스에 의해 하스모니아 왕가에 병합되었다. BC63년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면서 BC40년경에 실질적인 통치권을 헤롯 왕가에게 주었다. 이에 헤롯대왕(BC37-BC4)은 이곳에 인공적인 항구도시를 건설하고 로마황제(Caesar Augustus)를 위하여 시저리아(Caesarea)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렸다.

시저리아는 약 12년간의 공사 끝에 주전 13년경에 완성되었다. 시저리아는 규모 면에서 아주 큰 항구도시이다. 헤롯이 이렇게 큰 항구도시를 건설한 이유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통치자임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함이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항구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북쪽 레바논으로 금과 백향목을 수입하던 항구 옴바가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항구를 건설함으로써 로마의 문물을 신속히 받아들이고 사마리아의 농산물을 로마에 수출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과시하고자 했다.

헤롯이 시저리아를 만든 또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 북쪽 도르(Dor)와 옴바(Jaffa) 사이에 좋은 항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페니키아에서 이집트로 항해하려면 북풍이 불어도

피할 항구가 없기 때문에 폭풍 속을 그대로 항해해야만 한다. 이스라엘의 해안은 남풍이 심하게 부는 지역이므로 항해 중에 폭풍을 피할 항구가 필요했다.

헤롯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자연의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아테네에 있는 피레쿰 항구보다 더 큰 항구를 건설했다. 그는 깊이가 36.6m나 되는 바다를 돌로 메웠다. 바다를 메우는데 사용된 돌들 중 큰 것은 가로 15m, 세로 3m, 높이가 2.7m 가량 된다. 바닷가에 건설한 이 인공항은 너비가 61m에 달했다. 이것들 중 반은 부딪혀오는 파도를 막아내는 방파제였다. 나머지 반은 그 위에 성벽과 여러 망대들이 건설되어 있었다.

### 지중해안의 유적의 보고

시저리아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터어키의 안디옥과 더불어 지중해 3대 항구로서 동서 국제 무역항으로 발달하여 이 지역의 중심도시가 되었으며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총독의 거주지였으며(곧 유대지역 총독부가 있었던 곳임) 빌라도는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이곳에서 총독으로 재임하였다.

시저리아는 신전, 극장, 원형극장, 시장, 주택지, 그리고 잘 연결된 거

리들로 설계된 도시였다. 이 도시를 완성하는 데 12년이 소요되었다. 이 도시는 급진적으로 발전하였다. 거대한 상업 중심지로 탈바꿈하였으며, 주후 6년 이후로는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들의 수도가 되었다. 이 도시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살았으며, 이들 사이의 다툼은 주후 66년에 일어난 유대인 반란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시저리아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파견된 로마 군단들의 전초기지였으며, 이곳에서 로마군 사령관 베스파시아인 황제로 추대된 것이다. 이후에는 콜로니(colony)가 되어졌으며,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이후로는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되어졌다. 중심 도시로 부상한 시저리아는 바르코흐바 반란 기간 동안에 반란 진압을 위한 중심 기지였었고, 이곳에서 랍비 아키바를 비롯한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고문을 당하고 처형되었다. 3, 4세기에는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섞여 살았다. 그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은 랍비 아바후와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아우레기네스와 유세비우스가 있다.

비잔틴 시대에도 도시는 번성하였다. 그리고 400 에이커 면적을 점유할 만큼 확대되었다. 6세기 말엽에는 도시를 감싸는 성벽이 건설되었는데,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성벽이 건설된 것이다. 640년 아랍 사람들의 정복과 함께 시저리아는 그 정치적, 경제적 중요성을 상실하였다. 거의 대부분의 인구가 떠났으며, 아주 작은 마을로 전락하였다. 9세기가 되어서야 해상 무역의 발달과 해변 도시들의 중요성이 재발견되면서 시저리아가 다시금 축성되었으며, 이 도시는 1101년 5월 17일에 십자군들에 의해서 정복되었다. 그리고 가르니어(Garnier) 기사

단에 의해서 통치되어졌다. 1251년, 프랑스의 십자군 루이스 6세 왕이 다스리던 때에 시저리아 성벽이 튼튼하게 재축성되었다. 1265년에 마멜룩 왕조에 의해서 정복되었으며, 도시는 파괴되었고 폐허가 되었다. 이 폐허의 도시는 주변 지역의 건축에 필요한 석재 공급지가 되어 버렸다. 19세기까지 이 도시는 폐허로 방치되어 왔다.

베드로는 이곳에서 50km 남쪽으로 떨어진 옴바의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기도 중에 이방인에 대한 환상을 보았고, 그 후 고넬료가 보낸 하인을 만나고 그를 따라 가이사라로 와서 고넬료를 만나 이방인 선교의 첫 삼을 땀다. (행 10:1-43) 베드로는 고넬료의 믿음과 행위를 칭찬하면서 그의 집에서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고넬료의 모습이 거울이 된다. 외모 즉 환경, 배경, 권세, 물질적 요소가 부르심에 합당한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가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다.

로마 지배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는 공포와 고통의 치욕의 도시였지만 이 타락한 도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최초로 이방인에게 베풀어진 곳이라는 것이 굉장한 의미로 다가온다.

바울 사도는 이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복음을 위하여 죽음을 불사하고 올라갔고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이곳으로 다시 압송되어 이곳에 있는 감옥에서 2년간을 있으면서 로마를 향하는 복음전파의 꿈을 꾸다 결국은 로마로 향하는 배에 오른다. 이곳은 바로 로마를 향한 선교의 출발지가 되는 것이다.

(계속)



로마 비잔틴 시대의 물물교역센터

채플과 엠버밍시설을 보유한 오렌지카운티 한인장외사

# 리스장의사 장례적금

장례는 현실입니다. 이제 리스장의사 장례적금으로 부담을 덜어 내세요. 장례적금은 장례보험과 다르게 양도양수가 언제든지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불입하지 못하여도 강제해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달 납입 또는 디파짓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초 약속된 금액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장례적금은 아무 조건없이 누구든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매장패키지		화장패키지	
실제금액	실제불입액	실제금액	실제불입액
A \$2,270 SAVE (\$10,070)	\$7,800	A \$2,070 SAVE (\$8,070)	\$6,000
B \$2,820 SAVE (\$8,820)	\$6,000	B \$2,770 SAVE (\$7,570)	\$4,800
C \$2,170 SAVE (\$6,970)	\$4,800	C \$3,070 SAVE (\$6,670)	\$3,600
D \$1,655 SAVE (\$4,655)	\$3,000	D \$1,365 SAVE (\$2,565)	\$1,200

\*최저 23%에서 최고 \$539까지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고인의 교회, 자택 등, 평소에 고인이 편안하게 생각하신 곳에서 장례식을 치루실 수 있도록 출장서비스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Since 1966

“이제 부담없이 마음놓고 있을 수 있게 되었네요”  
리스장의사 장례적금을 통해서 \$3,000이나 절약하고 덕분에 아이들도 한결 마음에 부담이 덜 한 것 같아요. 고마워요, 리스장의사

왜 리스장의사 일까요?  
유족과 같은 마음으로 리스장의사도 함께합니다  
지금은 무한 경쟁시대, 최소 10% 이상 더 저렴한 비용을 약속드립니다  
타 장외사의 채플비용을 절약하시면서 고인과 지인들에게 가장 편안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24시간 한국어 문의  
**(714) 469-1040**  
Fax (714) 333-4916 351 N Hewes St, Orange, CA 92869

Lee's Mortuary FD1164  
**리스장의사**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 복새동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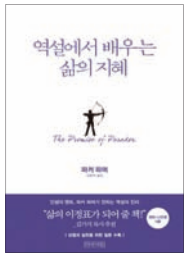


### 신간 도서

#### 역설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파커 파머 | 김명희 역 | 아바서원 | 216쪽

저자가 쓴 <가르침>이란 전작의 개정판으로, 모순을 마주하는 새로운 자세뿐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와 공동체성에 대한 정의, 세상 결핍이 전제하는 사고 방식, 왜곡된 '가르침'의 개념과 그로 인한 교육 현장의 문제점들에 대해 말한다. '교사들의 교사'로 알려진 저자가 삶을 통해 깨달아 일평생 가르쳐 온 역설의 진리가 모순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 타인의 힘

헨리 클라우드 | 김성아 역 | 한스미디어 | 300쪽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룬 성공과 실패의 이유를 거시적 환경이나 사회의 구조적 문제, 자신의 기량 등에서 찾는다. 저자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타인의 힘'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성패는 결에 누가 있었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어떤 종류의 힘을 받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

우즐라 코흐 | 이은자 역 | 솔라피데 | 240쪽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남성들만의 역사가 아니다. 저자는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믿음의 여성들인 롯, 하갈, 밧세바, 한나, 리스바의 삶을 스토리텔링으로 쉽게 전달하고 있다. 저자는 독일 태생으로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에서 독문학, 역사학, 기독교학을 공부했고, 독일의 9년제 중고등학교인 김나지움에서 국어, 역사를 가르치다 선교사역을 시작했다.



#### 삶을 바꾸는 십자가의 14가지 능력

노용찬 | 세움과비움 | 348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용으로 전했던 저자의 설교 14편을 모았다. 저자는 책의 제목에 대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깊이 깨달아 전파해야 할 복음의 내용도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상담코칭학 박사 과정을 공부한 상담전문가다.



###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 REVIEW

# 확실한 지식, 도그마를 위한 드라마를 소망한다

도로시 세이어즈(Dorothy Leigh Sayers, 1893-1957)는 영국의 C. S. 루이스, 돌킨과 함께 거론되는 대표적인 기독교 문인이다. 세이어즈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많은 장벽이 있었음에도, 탁월한 문장 실력으로 문학과 신학계에서 인정을 받았다.

2004년 출판된 세이어즈의 저술, 'Letters to a Diminished Church: Passionate Arguments for the Relevance of Christian Doctrine'를, 한국IVP에서 <도그마는 드라마>라는 저술로 재출간했다. IVP는 편집 기술이 좋고, 독자에게 관심을 갖도록 제목을 설정했다. 그리고 '도그마'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에 대해, 디자인도 매우 산뜻하게 제작했다.

3권의 책을 조합하자면 'Diminished(몰락하는) 교회, 그리고 신조에 대한 혼돈에서 'Whimsical(기발한) 드라마의 즐거움과 생동감을 제공하는 역전(dramatic)이 있다. 1940년대 몰락하는 영국 교회를 보면서 저자는 '상상력'을 제안했다. 2017년 영국 교회는 더 깊은 낙락으로 빠졌지만, 기독교 지성으로 문제를 돌파하려는 시도를 볼 수 있다.

확실한 기독교 지식 체계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드라마는 강한 추진력을 제공한다. 힘을 상실한 교리에 힘을 제공하려는 저자의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역사, 도덕, 죄, 직업(노동, 소명, 창조적 활동), 창조적 지성, 부활절, 미학(美學, 플라톤의 미



도그마는 드라마  
도로시 세이어즈 | 홍병룡 역  
IVP | 358쪽

학과 기독교 예술의 연관, 알레고리의 가치성, 파우스트 전설과 마귀, 키루스(Cyrus, 고레스), 예술 등 다양한 방면과 주제를 다루었다. <도그

마는 드라마다>를 읽으면 문학에서 신학으로, 신학에서 문학으로 자유로운 문장을 볼 수 있다.

<도그마는 드라마>는 신학과 문학이 혼합된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문장 구조다. 이야기를 만들지 못하면 어떤 것도 독자를 설득할 수 없는 내러티브(narrative, 드라마) 시대이다. 세이어즈의 저술은 문학가가 기독교 변증을 시도해서, 신학과 잘 혼합시켰다. 신학 연구자들에게도, 자기 학문을 이야기로 어떻게 변환시킬지에 대한 좋은 교범이 될 것이다.

신학과 문학을 병행하는 기법은 매우 탁월한 학문성을 요구한다. 필자는 영국 사람(고교회) 톰 라이트

에 대해 '이야기체로 신학을 전개하는 연구자'라고 생각한다. 쉽게 책장을 넘길 수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내용들이다. 그래서 여러 번 곱씹어야 할 '드라마'이다. 드라마(문학)는 사실(fact)에 연연하지 않고, 도그마(신학)는 사실에 기초하고 결코 떠나지 않는다.

<도그마는 드라마>는 기독교 사회인 영국 사람 세이어즈가 강연한 내용을 모은 것이다. 비기독교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기독교 인문학을 창출할지, 중요한 숙제를 받는다. 성경 역사와 단절된 비기독교 사회인 대한민국에 적합한 기독교 인문학을 기대해 본다. 고정태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Imitating Christ Ministries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공동체

ICTC 훈련원 12969 Crescent Rd, Surrey, BC, V4P1J8 CANADA  
♥등록 604-535-1800 admin.ictc@gmail.com

## 2017년 하반기 프로그램 안내

### 예수님의 선교학교

▶ 전방개척선교에 부름받은 선교헌신자를 위한  
Jesus School of Missions

일자 / 10월 23일(월)~27일(금) 4박 5일  
강사 / 김병선 선교사 (전 GP훈련원장, 인도네시아 선교사)  
박신욱 선교사 (ICM 디렉터, 스페인 선교사)  
등록 / 150불(교재, 숙식 포함, 침낭/타월 지참)



김병선 선교사



박신욱 선교사

한국교회 선교사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추수할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선교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함께 훈련 받아 팀으로 갈 때에 더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선교학교 수료 후, 1년 선교공동체 훈련과 여러 교회의 공동파송으로 전방 개척선교지에서 팀사역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초청합니다.

### 예수님의 기도학교

▶ 목회자와 사모를 위한 Jesus School of Prayer

일자 / 11월 1일(수) ~ 3일(금) 2박 3일  
강사 / 이영환 목사 (대전한밭제일교회 담임목사)  
등록 / 60불(교재, 숙식포함, 침낭/타월 지참)



이영환 목사

이영환 목사님은 1980년 대전 한밭제일교회를 개척하여 기도와 전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자권을 누리는 목회철학으로 대전을 넘어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매일 한밭제일교회에서 열리는 목회자세미나에는 전국에서 약 1천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하고 있으며,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삶의 변화와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 진정한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하려면

## ‘교양보다 실천’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교회개혁과 종교개혁

앙리 베르누이가 감독한 영화 ‘25시’에서 안소니 퀴는 루마니아의 어리숙한 농부를 연기한다. 평범한 농부였던 그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 독일인, 그리고 전범으로 재판까지 받다가 겨우 풀려난다. 그 기간 동안 가정은 파괴될 대로 파괴돼, 아내는 소련군의 폭행에 의해 아이들까지 낳은 상태였다.

마지막 장면에서 어느 기차역에서 한 기자가 이 가족의 모습을 찍으며 안소니 퀴에게 웃으라고 말한다. 그는 억지로 웃으려고 하지만, 어그러진 모습일 뿐이다. 영화는 그 마지막 장면을 통해 안소니 퀴의 삶과 가정이 전쟁이라는 폭풍우 속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파괴되어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담아낸다. 웃는다고 다 웃음이 아닌 것이다.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50주년도 아니고 500주년이다. 그렇지만 50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는, 파탄이 난 부부의 결혼기념일 같아 보인다.

어느 부부가 결혼 50주년을 기념하면서도 이혼만 안 했지 부부로서는 끝났던 것과 다름이 없고 자녀들도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 기념일은 꽃과 맛있는 저녁 식사, 선물, 그리고 이벤트가 아무리 기다리다 해도 외식이고 형식일 뿐이다.

공휴일을 보낼 때마다 날의 의미보다는 그저 쉴 수 있어 즐거운 이들이 많다. 기념일은 그 기념일에 부합된 삶을 살았거나 그 기념일을 통해 뜻을 되새겨 우리들의 삶을 재조정하려 할 때라야만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와 성도들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할 것이다.

국가기념일 행사를 하러 전교생이 강당에 모일 때, 공식 노래, 교장 선생님의 훈사, 그리고 특별강연 등을 듣기 들어도 발을 배배 꼬고 시간이 지나가기만 바라는 것처럼, 교회나 성도들이 종교개혁에 대해 뜻뜻 미지근한 듯 싶다. 그것이 교회나 성도들에게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는 듯 하며, 심지어 개혁을 부르짖는 이들이마저도 그들이 말하는 개혁이 무엇인지 모호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상규 교수가 쓰고 영음사에서 낸 <교양으로 읽는 종교개혁 이야기>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고신 교단의 교수와, 합신과 깊은 관련이 있는 영음사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 책은 중



교양으로 읽는 종교개혁 이야기  
이상규 | 영음사 | 268쪽

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의미를 되새기고, 또 500년 전후로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되새긴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전에도 종교개혁의 의미와 역사를 다루는 책들은 꽤 많았다. 그 역사를 방대한 분량으로 다루고 각 사건과 주요 인물들의 주장을 기술한 책들이 많았기에, 어쩌면 이 책은 그 많은 연구의 산물에 아주 특별한 결과물을 내놓거나 특별한 시각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저자가 이 책의 제목의 수식어로 삼은 ‘교양으로 읽는’이란 표현처럼, 신학자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나 목회자들이 편하고 알기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가벼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 이전의 종교개혁을 다룬 책들이 방대한 분량으로 역사를 다루긴 했지만, 그 속에서 각 사건과 인물이 갖는 의미를 알기 쉽게 이야기하는 책들은 드물었고, 그 분량으로 인해 선뜻 읽음을 못낸 이들이 많았다. 또한 사건과 주요 인물 위주의 책들은 그 사건을 잘 설명하지만, 그것이 전체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이상규 교수의 책은 종교개혁 이전의 배경과 신학자들, 그리고 종교개혁의 전개 과정 속에서 갖

는 각 인물의 위치와 사건, 그리고 그들의 동기와 배경을 잘 설명함으로써 역사와 사건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독자를 돕는다. 이것을 통해 개신교가 가톨릭과 구별될 수밖에 없고, 각 개혁자가 주장하는 의미와 그 개혁자들이 속한 교파의 성격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배경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 책의 앞부분에서 저자는 종교개혁보다는 교회개혁이라는 말이 타당하다고 말한다. 그렇다. 종교개혁이란 말에서 기독교는 많은 종교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다. 교회와 성도들은 방관자적 입장에서 종교개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교회개혁이 맞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기념일로서의 종교개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도려내고 병을 치유하며 잘 못되게 벗어난 길을 인식하고 본래의 지점으로 돌아가 회복하는 진정한 교회개혁의 바람일 것이다.

그 점에서 이 책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기대고 있는 종교개혁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인식하게 한다. 우리가 무엇을 개혁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한다. 그냥 기념일 대신 진정한 기념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책을 통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를 다시 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 500년 전에 있었던 당시 교회의 모습이 약간의 경우만 다를 뿐, 지금의 교회 상태와 그리 다르지 않음도 우리가 읽으며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당부라면 당부, 부탁이라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양’이 아니라 ‘실천’으로 읽는 종교개혁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책은 저자가 쓰는 이 책의 후속편이 아니라, 각 교회나 성도 자신이 종교개혁을 종교개혁이 되기 위해, 아니 교회개혁을 신앙개혁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의 결단과 헌신으로 쓰여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 물론 내 자신도 당연히 포함된다.

문양호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예수 이해를 견고하게 할

## 역사적 예수 탐구

기독교 학문의 정수



역사적 예수 입문  
헬렌 본드 | 이승호 역  
CLC | 303쪽

생에 대해(당시 상황-중간기), 유년기, 갈릴리, 예수의 메시지, 예루살렘, 재판과 처형 등으로 연구자들의 연구를 집약해서 서술했다. 예수 탄생에 대해 B.C. 6년을 제시하는 것은 역사 자료의 확증(연구조사 시행)을 통해서다.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 예수와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명료한 자료들을 제시했다.

헬렌 본드는 라이마루스(Hermann Samuel Reimarus, 1694-1768)가 ‘역사적 예수와 복음서들 간의 연관성을 깨버린 것’을 제시했다. 라이마루스의 저술은 유고적으로 레성이 편집한 <변론>(1778년)이다. 그래서 본드는 역사적 예수 탐구의 시작을 1778년으로 제시했다.

복음서를 벗어나 예수를 탐구하는 행태의 시작이 ‘죽은 라이마루스’에 있는 것이다. 복음서에 있는 모든 기록에 대한 의심이 시작된 것이다. 제자들의 사기, 거짓 죽음, 오병이어 기적 등이 가능한 이유이다.

본드는 옛 탐구(The Old Quest), 탐구 포기(No Quest), 새 탐구(The New Quest), 3 탐구(Third Quest) 등 예수 탐구의 4단계 여정을 제시했다. 어떤 연구자는 예수를 탐구하지 않는 시기(No Quest), 옛 탐구, 옛 탐구 모라토리움(Moratorium), 새 탐구, 3 탐구로 구분하기도 한다.

‘역사적 예수(Historical Jesus)’는 예수를 이해하기 위한 인간의 다양한 시도이다. 합리적으로 예수를 이해하려는 여러 시도들이다. 인간의 합리성은 제한적이고 확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본드는 ‘확실하다’는 단어를 가끔 사용한다. 순수 학문을 추구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는 것에 ‘확실하다’고 단언하지 않는다. 순수 학문에서 확실성을 표현하는 것은 우르스럽다.

<역사적 예수 탐구>를 읽는 독자는 기독교 역사 속 ‘예수 탐구’의 흔적을 명료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역사를 이루려는 데이터 조합의 합리, 맹점, 맹신 등을 인식해야 한다. 역사적 예수 탐구는 지성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필수적인 분야이다.

목회자들은 예수 이해를 견고하게 할 수 있다. 본드의 <역사적 예수 탐구>는 기존의 예수 탐구 저술들의 제시와 다르게 매우 쉽고 명료한 문장으로 독자들을 매료시킬 것이다.

고경태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기독교 학문의 정수는 ‘예수 탐구’일 것이다. 예수를 ‘믿음 대상’으로 삼는 성도는 ‘예수 탐구’라는 분야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예수 탐구’라는 과도기를 타지 않으면, 신약 신학과 기독교 모든 분야에서 이해를 추구할 수 없는 고립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신앙의 대상으로서 예수(대상)’와 ‘모범의 표본으로서 예수(주체)’ 중에서 ‘믿음의 모범으로 예수’를 강조하는 것이 대세이다.

본드가 집필한 <역사적 예수 입문>은 ‘순수 학문’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한다. 기독교 학문은 자기 믿음을 표현해야 하는데, <역사적 예수 입문>은 순수한 학문 내용을 집약해서 서술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 입문>은 독자에게 자기 사상을 도려내려는 의도가 아닌, 순수하게 100여년 간 펼쳐진 예수 탐구 자료를 읽기 쉽게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매우 읽기 쉬운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번역자의 실력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번역자는 애매한 단어를 괄호 영단어를 제시해 한국 독자를 배려했다.

<역사적 예수 입문>은 2부 13장으로 구성됐다. 1부(배경)는 역사적 예수 탐구와 역사적 예수에 대한 자료를 제시한다. 70쪽의 분량이지만 매우 잘 정리했다. 라이마루스에서 톰 라이트까지 예수 탐구에 대한 개략을 제시했다. 많은 연구자들이 등장한다. 신학도는 연구자를 숙지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 탐구에 대한 개략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본드는 샌더스 등에서 유대교에 대한 이해(홀로코스트)의 전환을 제시했다.

2부 ‘예수에 대한 짙막한 묘사들’에서는 예수 생애(예수전)에 대한 전체 요소들을 정리했다. 예수 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여러분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쫓아 주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드머와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골드로 활짝 웃으세요.



## 프로지 골드 PRO-Z GOLD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있으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자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능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진다.

### 프로지골드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 골드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해당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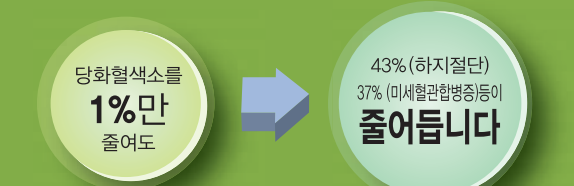
##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국가대표 제1대학차 송문기 박사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UC사리대 생화학 분야 연구소장  
• 미 연방재정건강보험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

1병 \$60+Tax  
3병 \$170+Tax  
6병 \$33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 제 24차 / 목회자, 평신도를 위한

# JHM 영성 컨퍼런스



## 간증사례

### 유○○사모/ LA

저는 두 번의 직장암 수술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암이 재발되어 두 번째 수술할 때는 직장의 암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채 봉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3개월에 한 번씩 MRI, CT Scan, 피검사 등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 캤빈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바로 그 날, 잠을 자는데 어떤 큰 손이 나의 직장암 대장을 밖으로 꺼내어 물로 깨끗히 씻어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후 7년이 지난 지금에는 전문의로부터 나는 더 이상 암환자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고, 더 이상 매년의 정기 검진이 필요 없다고 의사로부터 확신을 받았습니디. 이 차유 받음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체형하게 되었고, 그분이 역사하시면 어떤 질병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 밖에 없었던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보답으로 저는 평생 JHM 사역을 도와서 나와 같이 불질병으로 고통 받는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싶습니다.

### 이미선 자매/ 사랑의 교회, 서울 서초구

오랜 믿음생활에도 저의 신앙은 결들았으며 게다가 결혼 6년차 임에도 아이가 없었고, 시험관 아기를 세 번째 시도해봤지만 실패했고, 남편과의 사이도 멀어져서 저는 이것이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혼을 고려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때 여 캤빈 목사님에게 상담과 기도를 받은 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선이 한 차원 달라졌습니디. 특별히 방언통번을 통해 제 영의 간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기도생활에 열심을 내게 되었고, 그런 와중에 시험관 아기를 4번째로 다시 시도하교픈 마음이 들어 실행에 옮긴 결과 지금은 임신 19주째의 건강한 딸 아이가 제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캤빈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 정○○집사/ 대학교회, 서울

저는 원인 모를 어지럼병으로 몇 년 동안 누워서만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 때는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오랜 시간 해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내 안에 무명의 악한 영으로부터 짓눌려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축사를 통해 악한 영이 쫓겨가는 것을 체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 생활 했음에도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저에게 목사님은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이제는 말씀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안개가 걷히는 것같이 선명해지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 캤빈 목사님의 성령 사역은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역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싶습니다.

### 김○○목사/ LA 사역자

저는 지난 5년여 동안 아주 심한 변비로 인해 배는 임신 10개월처럼 나와 있었고 늘 고통을 받아왔었는데 지난 11월 19일에 캤빈 여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완전 치유를 받게 되어 지금은 이전과 같은 변비로 인한 고통없이 지내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캤빈 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영성 컨퍼런스에서도 크신 역사와 치유 그리고 기적들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 임동연 집사/ 서울, 4차~16차 집회 참석자

저는 본래 무신론자로서 살다가 예상치 못했던 사업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몸까지 아파서 자살까지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의 소개로 목사님을 만나 상담하고 JHM 영성 집회를 꾸준히 참석한 결과 지금은 건강과 일 그리고 재정문제까지도 회복되었으며, 나의 일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속에 늘 감사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LA서 열리는 영성 집회에 꼭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 캤빈 목사님이 잘 도와드릴 겁니다.

### 데니얼 아빠/ 집사, 서울

50대 중반의 사업가로서 저는 사업상 여러 번의 쓴 잔을 마셨습니다. 모든 신앙인이었지만 믿음 생활은 항상 곁들였고 사업은 내 머리와 힘으로만 했기에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을 만나 성경을 배우게 되었고 또한 저를 위한 예언사역을 통해 신앙적으로 교제하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부터 제 삶은 변화기 시작했어요. 먼저 성공해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기도해 오던 삶의 우선 순위가 어느덧 바뀌어 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에는 그토록 노력했으나 되지 않았던 일들이 술술 풀리면서 지금은 사업이 미국, 중국, 동남아로 진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계십니다. 이제 저의 목표는 JHM의 곡간을 채워서 작은 교회 목회자와 세계의 선교사들을 영적으로 돕고자하는 목사님의 비전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쓰임 받는 것이며, 저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힘으로만 사업하며 고생하는 사업가들을 이 사역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저를 재정적으로 회복시키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 드보라 김 사모/ LA 사역자

오랫동안 가까이서 지켜본 여 캤빈 목사님은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항상 겸손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언제나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는 귀한 사역자입니다. 이전에 제가 많이 지쳐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그 때 5살 아이로 보이는 제 어린 시절의 모습과 그 옆에 예수님이 저를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게 되었어요. 제 어린 시절은 온 가정이 불교에 심취해 있던 때였음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위로와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권세능 목사/ 주천성교회 담임, 경기도 평택

올해 8월 여 캤빈 목사님 초청 영성 부흥회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가졌던 그 어느 집회보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체형하고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집회였습니다. 특별히 방언을 오랫동안 사모했으나 받지 못했던 모든 성도들에게서 방언이 터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또한 세밀하고 정확한 방언통번을 통해서 성도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집회는 영적 침체에 빠져서 목회를 중단하려 했던 저를 변화시켜 새로운 사역자로 거듭나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영성 사역자가 여 캤빈 목사처럼 지적이면서도 성경 말씀에 깊이가 있고 은사를 성경적으로 균형있게 잘 활용하는 분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영성 사역자로 귀하게 쓰시는 신실한 종입니다.

### 이상목 목사/ 이어리한인교회 담임목사

저희 교회에서의 두 번에 걸친 부흥집회를 통해 성도들의 오랜 영적인 문제가 해결 받고 신앙과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여 캤빈 목사님은 말씀과 영성을 균형있게 겸비한 사역자임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영적 세계에 관한 것들 즉 방언통번, 예언, 축사 사역은 아주 탁월합니다.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므로 JHM 영성 컨퍼런스에 참석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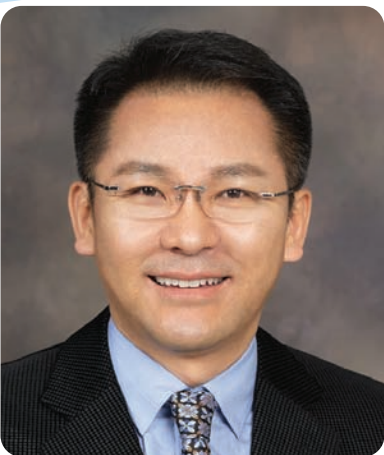
영적 정신적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 ‘자유함’

이새의 줄기에서 한 짝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11:1-2]

주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잡힌 파워 크리스찬으로의 회복”



주강사 여 캤빈 목사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GAPCK)
- 치유사역자 (신유, 예언, 축사, 방언통번)
- 영성집회 인도자 (미국, 한국, 중국, 유럽, 서남아 등)
- Kunsan National Univ.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BA
- Miju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M.Div
- Criswell Theological Seminary MA 2yrs. <Dallas, TX>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MA 2yrs.
- Grace Theological Seminary MA <Indiana, OH>
- Grace Theological Seminary Dr. of Missiology Candidate <Indiana, OH>

### 할렐루야!

제 24차 JHM 영성 컨퍼런스'를 미국에서 열게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행해 온 지난 22차에 걸친 'JHM'을 통하여 많은 참석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쁨부으심을 통해 은혜의 회복과 은사를 경험한 후 변화되어 각자의 지역 교회에서 신실한 일군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지나 온 JH Ministry를 통해 말기 위암 환자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환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옛 자아, 죄 그리고 질병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실 제 24차 'JHM 영성 컨퍼런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박 4일 동안 본 집회에서는 성경적인 신유, 예언, 축사, 방언, 방언통번 등의 은사들을 정확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고통 중의 성도에게는 자유함을, 갈급한 영혼에게는 생수와 같은 성령의 기쁨부으심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제 24차 'JHM 영성 컨퍼런스'를 통해 여러분의 영성과 믿음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십시오.

참가자분들께 차편 제공해드립니다.

- 컨퍼런스 일시 : 2017년 10월 2일 (월, 4pm) ~ 10월 5일 (목, 4pm)까지 3일간
- 장소 : 빅베어 Pine Crest Christian Conference Center
- 주소 : 1140 Pine Crest Road, Twin Peaks, CA 92391
- 접수 마감일 : 2017년 9월 30일까지
- 참가비 : 300불
- 준비물 : 성경, 세면도구

## JHM 초청대상

- 육체적인 질병과 싸움하며 고통중에 있는 분
- 영적 세계에 눈을 열렸지만(예언, 영분별 등) 분간이 잘 되지않아
- 진정한 영적싸움과 그 승리의 원리를 알기 원하는 분
- 죄인 줄 알면서도 자기의지로 절제할 수 없는 각종 중독(마약, 술, 도박, 음란) 등으로 고민하는 분
- 짓눌려 있거나 궁극한 분
-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성경적인 돌파구를 찾기 원하는 분
- 복잡한 문제에 얽혀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채 방황하는 분
- 영적 은사를 사모하는 분
- 많은 은혜를 체형하면서도 지아문제와 신앙성장 문제에 걸려 고민하는 분
- 방언을 하지만 확신이 없거나 방언은사를 사모하는 분



주소: P.O. Box 74069, Los Angeles, CA 90004

문의전화: 213.806.9990